

| 죄거산 윤문사 |



여제의 빛에 한가지  
향을 낳았네  
향 속에서 하나의  
옹(匱)을 보았네  
아침이 와서  
꽃이 아름기를 하려고  
머리를 들다  
꽃(空)을 보았네



그리면 이 빛이  
그 빛이 먼가  
혹은 그 빛이  
이 광(匱)이 먼가  
한 바탕 뜻 인생  
생각 하니니  
모두 이 꽃 속에  
자나지 않네  
이현철연 저우  
음득의 시를 듣다  
윤병 윤문사





## 수행자의 아름다움

명성 / 운문승가대학 학장

현대사회는 무한경쟁의 사회입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쉽게 무언가를 이룬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으로서 대접 받습니다. 특히 한국사회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들여야만 하는 노력과 방법의 정당성, 절차 등은 무시하고,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가치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의 성공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으로 드러난 번드레한 결과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나는 이렇게 쉽게 돈을 벌었다, 나는 이렇게 쉽게 학위를 취득했다." 등등,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보다 時運을 타는 임기응변과 특별한 능력, 행운 등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성공을 신화로 만들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기 마련입니다. 더구나 그것은 진실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타인의 희생과 거짓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가짜 학력사건에서 보았듯이 그런 성공은 참으로 허망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부처님과 역대 조사스님들의 깨달음이라는 결과만 볼 뿐, 깨닫기 위해 얼마나 난행 고행 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돈오돈수(頓悟頓修)가 수행을 부정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수행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여행으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심자들에게 그 결과만 눈에 들어오고,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 남모르게 훌려야 했던 피와 땀은 간과되기 쉽습니다.

이렇게 결과만 바라는 태도는 세속의 삶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수행자에게는 더욱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유마경』에서 '직심(直心)이 도량'이라고 말했듯이, 수행이란 간결하고 진실한 마음을 바탕으로 하며, 깨달음은 어떤 결과를 얻겠다는 욕심으로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걸음의 진정성만 생각하면서 묵묵히 걸을 때, 어느 날 눈덮인 설산의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것처럼,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진실하게 애쓰고 각고의 노력을 다할 때, 부처를 이루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조고각하(照顧脚下)하는 진실한 수행자, 비록 그가 아직 부처를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아름다운 것은 바로 애쓰고 노력하는 진실성 때문이 아닐까요? ♡

## 참법 수행의 전통과 계승

- 신라 · 고려시대를 중심으로 -

효 탄 / 운문승가대학 강사

### 목 차

- I. 서론
- II. 참법수행
  - 1. 신라시대 점찰법의 수행
  - 2. 고려시대 참법 수행**
    - 1) 점찰법의 계승
    - 2) 자비참법의 수용
- III. 결론

### 2. 고려시대 참법 수행

#### 1) 점찰법의 계승

그러한 진표의 점찰법회는 고려 중기에 이르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어 갔다. 津億에 의해 주도된 지리산 水精社의 점찰회<sup>1)</sup>와 국가 차원에서 베풀어진 점찰회가 그것이다. 진억은 현화사에 들어가 慧德韶顯에게 공부하고 대선에 합격한 유가 법상종 인물이다. 그는 결사를 맺고 無量壽佛

을 만들어 격려하며 함께 서방에 이르기를 목표로 독경 · 염불 · 참선 등을 하였다. 또한 입사자는 생 · 사를 불문하고 간자에다 이름을 새겨두고 15일마다 『占察業報經』에 의해 그것을 굽여서 선악의 보용을 점쳤다. 그런데 수정사에서 행한 점찰법회는 점찰경을 설한 지장보살이 아니라 아미타불의 서방정토 왕생을 회구한 이례적인 것이었다.<sup>2)</sup> 일찍이 신라에서는 미륵불과 미타불이 함께 신앙되었으며 미륵정토와 미타정토의 우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법상종의 주불은 미륵불이나 미타정토 신앙의 대중화에 따라 진억은 이러한 점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禮念彌陀道場懺法』의 간행과 유포와도 함께 겸토되어야 한다.

한편, 金富軾의 占察會疏와 劉羲의 占察會疏<sup>3)</sup>는 ‘地藏과 慈氏가 정계의 법문을 열었고, 律師의 신심이 보살의 침된 부축을 전하였다.’라고 하였듯이 진표의 점찰법이 국가적으로 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점찰회는 각각 인종대와 무신난 직후 명종 초(1170)에 베풀어진 것으로 정치상 변란과 관련하여 正命이 아닌 죽은 자들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위령제의 성격이었다.<sup>4)</sup> 또한 왕의 질병 치유와 황천을 떠도는 원혼이 생천하기를 바라며, 세상의 화근을 막고 번뇌가 보리가 되어 부처님을 보게 되기를 기원하는 현실적인 것이었다. 이와 같은 것은 법상종의 고승들이 국가적 행사에 『金光明經』을 설하며 祈雨 및 消災를 베푼 것과 상통하는 것<sup>5)</sup>으로 점찰법의 참회와 정진을 높이 평가하며 그 혜택과 효용을 기원한 것이다. 이것은 고려 중기 정치 · 사회적 혼란과 관계가 있으며, 참회 정

진을 통해서 현세의 福과 雪冤 및 追福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 2) 慈悲懺法의 收容

진표의 점찰법은 후대에까지 계승되어 고려시대에도 연면히 시행되어 왔다. 그런데 고려 睿宗 이후 『慈悲道場懺法』<sup>6)</sup>에 의한 ‘慈悲懺’이 시행됨이 나타난다. 원 지배하의 慈淨彌授(1240~1327)에 의한 『慈悲道場懺法述解』<sup>7)</sup>의 찬술은 적극적인 자비참 수용의 형태를 보여 주는 것이다. 점찰법과는 같은 참법이라는 수행의 성격을 갖는 자비참은 고려시대 후기 법상종[慈恩宗]에서만 수용된 것은 아니었다. 禪僧인 東林師는 자비참에 대한 『略解』를 지었을 뿐 아니라 조선 초까지 활약한 천태 종 승려 祖丘는 『집해』를 지었고, 이후 많은 인출을 가져와 종파를 초월하며 유행하였다.<sup>8)</sup> 그리고 조구<sup>9)</sup>의 『慈悲道場懺法集解』에 미수의 『자비도량참법술해』의 내용이 100여 차례 이상 인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sup>10)</sup> 자비참법의 신앙형태가 널리 수용

된 것을 알 수 있다. 『집해』를 지은 시기는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을 간행한 宣光 7년 (1377)을 전후한 시기로 추정하고 있다.<sup>11)</sup>

『자비도량참법술해』의 저자인 미수는 12) 일찍이 법상종의 핵심 논전인 『유식론』을 강석하여 사람들은 그를 한 시대의 指南으로 삼았으며, 법주사에 있을 때 왕명으로 제 경론에 관하여 주석하여 이를 세상에 유통시키는 한편, 서책으로 편찬한 것이 무려 92권에 이르렀다.<sup>13)</sup> 그는 충선 · 충숙왕에게 귀의를 받았으며, 충숙왕 2년(1315) 懺悔府를 설치하여 僧政을 전담하였는데,<sup>14)</sup> 특히 ‘참회부’라 칭한 것은 그가 평상시 참회수행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이러한 참법과 대표적 정신으로서의 ‘자비’가 연결된 『자비도량참법』은 양 무체의 찬수와 고승들의 摂錄, 송대에 주석을 거쳐 元代에 와서 對校와 審訂을 본 것이 고려 초에 유입되어 여말에 이르러서는 미수에 의해 『술해』를 가져오게 되고 나아가 조구의 『집해』를 보게 된 것이다.<sup>15)</sup>

6) 『慈悲道場懺法』은 원래 중국 南齊의 壶陵王이 어느 날 꿈을 꾸고서 감응된 바를 적어서 21편 30권으로 한 것이 시초이다. 그 뒤 梁武帝의 妻였던 賚氏가 꿈으로 뱀으로 나타나 구제해 줄 것을 간청하니 양 무체가 6근문에 의거하여 眞觀 등에게 10권의 참법을 편찬해 한 것으로써 세간에서는 ‘梁皇(賚)懺’이라고도 한다. 그 후 중국에서는 宋代 溫陵 전교사문 戒環이 辨하고, 眞師가 注를 찬하여 통하게 하였으며 청량산 廣鈞師가 祥校 한 후에 私抄 3권을 저술하였고, 우바세인 汝男 聰明公이 注를 달았다.

7) 『大正藏』45, pp922 967

8) 祖丘, 『慈悲道場懺法集解』, 序, p1, 上 下.

9) 『朝鮮王朝實錄』卷6, 太祖 3年 9月, 10月, 및 4年條. 조구에 판에서는 『朝鮮王朝實錄』 등에 단편적으로 나타날 뿐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고려말 1310~1320년대에 출생하여 조선 초까지 활동한 천태종의 고승으로 1392년 이전에 禪敎都德攝의 자리에 오르고, 태조 3년 국사로 책봉되었다가, 다음 해(1395)에 임직한 것으로 보인다.

10) 李萬, 「高麗彌授의 唯識思想」, 祖丘의 『慈悲道場懺法集解』를 중심으로, 『韓國佛教學』20輯, 1995.

11) 南權熙, 「興德寺字로 찍은 『慈悲道場懺法集解』의 復刻本에 관한 考察」, 文獻情報學報, 第4輯, 1990. 『集解』는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과 같은 활자본으로 인출되었다고 보여지며 위 논문의 1377년은 洪武 10년에 해당하므로 護記가 아닌가 한다. 南權熙, 「興德寺字로 찍은 『慈悲道場懺法集解』의 摂者와 刊行에 관한 考察」, 『書誌學研究』 제7집, 『禮念彌陀道場懺法』 외 한역대장경 132.

12) 속성이 김씨로 경북 선산에서 태어났으며 본래 이름은 子安이었으나 꿈에 감응된 바가 있어 개명하여 彌授라고 했다. 「俗離山法住寺慈淨國尊碑」, 『韓國金石全文』, p1154.

13) 이 가운데에는 그의 찬인 『般若經難信解品記』와 『心地觀經記』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俗離山法住寺慈淨國尊碑」, 『韓國金石全文』中世下, pp1154 1157.

14) 국사에 의한 승정의 전답은 원 지배하고 불교계 변화의 하나이다. 허홍식, 『高麗佛教史研究』, 一朝閣, 1991.

15) 『자비도량참법』의 원본은 북송 태평홍국 연간(976~983)의 개판본, 경덕 연간본(1004~1007), 서하문 번역본(1068~1086)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충렬왕 8년(1282), 李德孫의 발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가장 오래된 것이다. 再雕大藏經補遺, 1282年, 1352年, 기타 無刊記本.

1) 權適, 『智異山水精社記』, 『東文選』卷64.

2) 아미타불과 지장보살 양쪽 다 사후세계를 관掌한다는 점에서 통할 수 있으나 지장보살보다는 서방 정토 아미타불을 믿어 극락왕생한다는 신앙이 더 우월하고 보편적이다는 점에서 아미타신앙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한다.

3) 金富軸, 『俗離寺 占察會疏』, 劉羲「兜率院 占察會疏」, 『東文選』卷110.

4) 金南允, 『新羅法祖宗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5, p169.

5) 『金光明經』은 『仁王般若經』에 버금가는 호국경전으로 주로 국가 왕실에서 주관 祈雨, 消災의 목적으로 설행, 고려 전 시기에 걸쳐 모두 26회의 설행 기록이 남아 있다. 인왕백고좌도량이 반송을 수반한 대규모 · 정기적 행사였던 것과는 달리 비중이 작았고, 설행 목적도 포괄적인 鎮護國家보다는 祈雨, 消災에 그치고 있다.

고려 시대에는 각종 도량이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 성격과 목적을 가지고 베풀어졌다.<sup>16)</sup> 그 가운데 예종 원년(1106) 10월 왕이 친히 '자비참도량'을 설치한 것<sup>17)</sup>으로 보아 고려조에 자비참이 일찍부터 거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비슷한 시기 義天의 「新編諸宗教藏總錄」에 '자비참법' 7권 梁武帝述 이라고 수록되어 있어 속장경 간행에 처음부터 계획되었던 것<sup>18)</sup>을 짐작할 수 있다. 대덕 2년(1298) 居祖社의 元勗에 의하여 이루어진 「現行西方經」에도 10여 차례 자비참을 인용하고 있는 바<sup>19)</sup> 당시에는 '자비참'이 널리 다양한 판본으로 유통되고 보편화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13세기 이후 만덕산에서 백련결사를 일으킨 了世(1163~1245)가 53불에 대한 꾸준한 예참행 때문에 '徐懺悔'라고 불리웠고<sup>20)</sup> 天因에게 계승된 천태, 법화삼매에 이르게 하는 실천방법으로 참회수행을 강조함<sup>21)</sup>은 당시 참회문화와 참법이 발달되었던 불교사상의 시대적 흐름과도 일치하고 있다.

그런데 미수의 「자비도량참법술해」에 관하여 당시의 화엄·밀교의 영향으로 파악하는 견해와 유식사상에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각각의 의견이 있다.<sup>22)</sup> 그러나 禮懺·참회의 형식은 각종파에 따라 보편적으로 행하여졌던 것이며,<sup>23)</sup> 자은종의 미수가 자비참에 대해 述解를 한 것은 화엄·밀교의 영향이라기보다는<sup>24)</sup> 오히려 지장·미륵의 참법수행의 오랜 전통과 관련이 있다. 桐華寺에서 심지에

의해 毘盧遮那佛, 藥師如來佛 등이 조성되고, 금산사에서는 혜덕 소현에 의해 廣教院에 蘆舍那佛이 봉안되고 있었던 것 등<sup>25)</sup>은 신라 하대부터 화엄·밀교의 영향이 큰 것을 보이는 것이다. '懺法'은 미륵신앙의 실천수행과는 뗄 수 없는 관계로 파악된다. 또한 「자비도량참법」이 미수에 의해 적극 수용된 것은 이 참법이 彌勒禮懺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아닌가 한다. 자비참법은 서두에서 미륵보살의 현몽에 의하여 이름을 세운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또한 각 권의 입참에 반드시 과거 7불 등 3세 계불께 지심귀명례 한 끝에 '본사 석가모니불', '당래 미륵존불'을 호불하고 있다. 더욱이 본문에 6회에 걸친 예참이 있는데 매회 반드시 미륵불을 호불하고 있으며, 讀에서는 '나무용화회보살마하살' (3번)로 마치고 있다.

이렇듯 미수에 의해 「술해」가 찬술될 수 있었던 것은 고려 말 토착적인 신비사조의 흐름에 민중불교, 지방 중심의 불교로서의 경향과 미수를 정점으로 하는 참회사상의 혼합으로 경전의 呪誦, 禮懺과 懺悔를 통하여 除災, 招福, 治病, 延壽 등의 현세 이익을 기원하는 일반 민중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사상적 배경은 중국 남북조 후기에 해당하는 5~6세기에 걸쳐서 유행했던 三階敎 및 참법의 성립배경과 일치하며, 죄과를 참회하는 공덕으로 세속적인 복을 추구하여 민중 속으로 침투한 중국불교의 수용태도의 특징과 맥을 같이

한다. 한편, 『점찰경』과 『자비도량참법』의 참법을 내용과 형식상에서 살펴볼 때, 자비참의 미륵의 큰 자비를 내세우고 정돈되고 합리적인 수행법이 신비적이며 점술적 요소가 강한 점찰법보다 호응을 받지 않았나 한다. 이것은 시대에 따른 인식의 변화 및 역사 변천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또한 『자비도량참법』 제10권에는 眼根, 耳根, 鼻根, 舌根, 身根, 意根, 口願 등의 발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楞嚴經』의 육근신통과 당시 유행하던 선사상파의 관계에서 더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III. 결 론

참회는 자기 자신의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감이요, 새로운 발전을 향한 자기 수정이며 내적 안심을 얻는 자기 정화 작용이다. 그렇다면 참회는 종교성의 극치라 할 수 있으며 불교에 있어서 특히 참회는 부처가 되어가는 중요한 수행의 길인 것이다. 만약 먼저 참회하여 숙세의 제업을 청정케 함이 없다면 여러 가지 장애 때문에 無上の 지혜를 수습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참회는 계율정신과 상통하나, 계법과는 달리 실참의 방법으로 발전해 나갔다. 이러한 참회법은 계법과 수계와 마찬가지로 점차 정례화·의례화되어 가면서 전개되어 갔는데, 진표에 의한 '점찰계법'은 실참의 대표적 모습이다. 이것은 점찰을 통해 참회 수행케 하여 佛果를 이루게 함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참법은 법상종 뿐만 아니라 여러 종파를 막론하고 각기 실참되었다. 한편 참회계법은 고려 중기부터 「자비도량참법」으로 통합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여말 법상종 미수의 「술해」, 천태종 조구의 「집해」 등의 찬술을 가져오고, 그 전적이 종파를 초월해서 유포되었다. 이와 같은 참회·참법의 발달은 그 후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면면히 이어져 왔을 것으로 여겨지나 구체적 기록을 볼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그 문헌이 전해져오고 실참이 전승되어 오고 있음은 참회의 정신이 살아있음을 입증하는

바이다.

요즈음 우리의 심성은 부끄러워할 줄도, 참회할 줄도 모를 만큼 폐폐하다. 이러한 우리의 심성을 승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참회 정신을 고양시키고, 적극 실참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은 물론 사회를 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 참고 문헌

- 金富軾, 「俗離寺 占察會疏」, 劉義「兜率院 占察會疏」『東文選』卷110.
- 權適, 「智異山水精社記」, 『東文選』卷64.
- 金南允, 「新羅法相宗研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5.
- 祖丘, 『慈悲道場懺法集解』
- 李萬, 「高麗彌勒授의 唯識思想」, 『韓國佛教學』20輯,
- 南權熙, 「興德寺字로 썼은『慈悲道場懺法集解』의 復刻本에 관한 考察」, 文獻情報學報, 第4輯,
- 「俗離山法住寺慈淨國尊碑」, 『韓國金石全文』
- 허홍식, 「高麗佛教史研究」, 一朝閣, 1991.
- 金炳佑, 「高麗時代 國家的 佛教行事에 대한 研究」, 東國大, 博士學位論文, 1992.
- 『高麗史』, 世家 卷12睿宗 元年 10月 초하루 己未條.
- 「新編諸宗教藏總錄」卷2, 『韓國佛教全書』4冊.
- 「萬德山白蓮社圓妙國師碑」, 『東文選』卷117.
- 李永子, 「天因의 法華懺法의 展開」, 『韓國天台思想研究』
- 「金山寺慧德王師眞應塔碑」, 『韓國金石全文』, 中世上.
- 曉啓, 「高麗 法相宗의 懺法 修行」, 『불교학연구』 4호, 2002.

16) 金炳佑, 「高麗時代 國家的 佛教行事에 대한 研究」, 東國大, 博士學位論文, 1992.

17) 『高麗史』, 世家 卷12睿宗 元年 10月 초하루 己未條.

18) 「新編諸宗教藏總錄」卷2, 『韓國佛教全書』4冊, p691.

19) 南權熙, 「興德寺字로 썼은『慈悲道場懺法集解』의 撰者와 刊行에 관한 考察」, 『書誌學研究』第7輯, p27.

20) 「萬德山白蓮社圓妙國師碑」, 『東文選』卷117.

21) 李永子, 「天因의 法華懺法의 展開」, 『韓國天台思想研究』, p248.

22) 南權熙, 「前揭論文」, p27. 李萬 「前揭論文」, pp386 390

23) 『高麗史』에는 懺法과 관련하여 1092년(선종 9) 6월 임신 天台宗禮懺法, 1363년(공민왕 12) 3월, 경신 華嚴三昧懺道場, 1365년(공민왕 14) 갑진, 懺經會가 각각 베풀어졌음을 보인다.

24) 원 지배 하 고려 말 어수선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비도량참법」은 밀교적인 경향을 띠는 것으로서 밀교의 護摩法 중 敬愛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나(南權熙), 이것은 자비도량참법의 내용을 검토해 볼 때 그렇게 단정지울 수 만은 없다. 왜냐하면 밀교적 경향으로 파악한다면 최소한 陀羅尼가 들어 있어야 하는 페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다.

25) 「金山寺慧德王師眞應塔碑」, 『韓國金石全文』, 中世上, p544.

## 수행, 일상의 파도타기

일혜 / 사집과

“若離日用하고 別有就向則是는 離波求水며  
離器求金이라 求之愈遠矣리라. 만약 일상생활  
을 떠나 따로 향해 나아갈 바가 있다면 이는 파도  
를 여의고서 물을 구하는 것이요, 그릇을 떠나서  
금을 구하는 것이라, 구할수록 더욱 멀어질 뿐이  
나라.”

안녕하십니까? 사집반 일혜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체 스님의 「서장」의  
한 구절입니다.

바다로부터 그 바닷물의 일렁임으로 만들어지  
는 파도를 오려낼 수 없듯이, 깨달음은 일상 속에  
서 찾아야 하고 수행은 지금 여기에서의 현실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누누이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일상」이라는 것을 들여다볼라치면  
우리는 가슴이 답답해지고 급기야 호흡이 곤란해  
지곤 합니다.

우리는 한 때 저마다 가지고 있던 「일상」을 그것  
이 무지몽매하고 부조리하다는 이유로 썩둑 베어  
내고 출가라는 것을 단행하였습니다. 굳이 이런저  
런 아픔과 슬픔을 감내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 비장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가 맞닥뜨린

것은 또 하나의, 여전히 무지몽매하고 부조리하면  
서 그 종류만 약간 달리 할 뿐인 「일상」이었습니다.  
깨달음이 일상의 밖에 있을 수 없고 수행이 그 속  
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 우리가 매몰차게 내다버  
린 「저」 일상을 속에서도 추구할 수 있었을 것을,  
「이」 일상을 굳이 선택한 것은 무엇으로 정당화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이」 일상이라고 해서 결  
코 깨달음에 더 근접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지금 여기에 남아 있습니까?

행자 때였습니다.

사시공양 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끝도 없어  
보이는 그릇더미에 파묻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  
니다. 갑자기 저항할 수 없는 출음이 밀려들기 시  
작했습니다. 눈꺼풀을 가눌 수 없는 순간, 손에서는  
는 어른 스님용 사기그릇이 자꾸 미끄러져 나가려  
했고, 그때마다 깜짝 놀라 손에 애써 힘을 주어 그  
릇을 잡을라치면 곧 깨어질 듯한 두통이 동반되었  
습니다. 그러나 다시 출음 속으로 빠져 들고… 이  
렇게 출다가 깨기를 그때 느낌으로는 약 백만 번  
정도 계속하는 동안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짜증은 곧 출고 있는 뇌의 한 쪽 구석에서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비판의 엔진! 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기동시켰습니다. 특히, 오로지 수  
행에만 전력해도 모자랄 시간과 노력을 다만 하루  
세끼 공양을 위해서 대부분 소진하고 있는 하루  
일과에 생각이 미치자 불쾌한 포만감과 더불어 분  
노는 증폭되기 시작했고, 급기야 저 깊고 있는 도  
시 빈민과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  
니다. 아!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그 뒷설거지를 하  
느니 차라리 저 도심의 무료급식소나 아프리카로  
가서 한평생 이름 없이 설거지를 하는 편이 훨씬  
의미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결심이 순식간에 확고  
부동해졌습니다. 이제 당장 고무장갑을 보란 듯이  
벗어 던지고 어디로든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몰록! 잠이 깨었습니다.

설거지통과 그 속에 담겨진 그릇들과 고무장갑  
을 긴 양손과 주변의 모든 사물들이 요란하고 희  
뿌연 진동을 일시에 멈추었습니다. 저는 마치 세  
상에서 그런 풍경을 처음 보거나 하듯이 접시들과  
비눗방울들의 선명한 자태를 바라보았습니다. 손  
가락에 애써 힘줄이 없이, 아무런 두통이 없이 안  
전하게 잡아서 하얗게 부서지는 물줄기들 사이에  
서 하나씩 행궈 내고 행궈 내고… 그렇게 그렇게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나 자신을 개선하고 일상을 개선하는 힘은 원망  
이나 자책, 증오나 연민, 회한과 걱정 등의 감정들  
로부터는 절대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좌충우돌하  
며 또 다른 일상의 얼룩을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보다 심각하게는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정  
확하게 파악조차 하지 못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많은 얼룩들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되 또한  
늘 일상을 여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대체  
스님의 말씀을 잘 새겨보아야 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일상 앞에 서서 늘 이것이 내게 가치  
있는지, 중요한지, 의미 있는지, 이로운지, 적성에  
맞는지… 한 마디로 내 스타일인지를 끊임없이  
평가하고 판단하고자 할 때 일상은 없고 오직 우

리 자신만 있습니다. 일상을 여의지 않는다는 것  
은 매순간 일상을 평가하려고 덤벼드는 사심 가득  
한 나의 의지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가장 무가  
치하고 무의미하고 재미없어 보이는 일들조차도  
그것이 나의 일상의 파도로 닥쳐온다면 묵묵히 집  
중하고 집중해서 세밀한 구석까지 정성을 들이는  
것이 일상을 여의지 않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집  
중해서 정성을 들이는 동안 그 집중하는 대상의  
수승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의 간절함에 의해서  
힘이 쌓여 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설  
거지 하면서 출고 있다면 아프리카의 어린이에 대  
한 연민이 아무리 크다한들 허영심일 뿐입니다.

어릴 적 바닷가에서 파도 넘기를 해 보신 분이  
라면 잘 아실 것입니다. 수영을 잘 한다면 그깟 파  
도쯤이야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좀 다릅니다. 열결에 물이 턱 밑까지 찰  
랑거리는 깊은 지점에 잤다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  
고 있는 높은 파도에 당황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거침없이 다가오는 파도가 무서워서 만약 등을 보  
이고 해변가로 도망가려 한다거나, 그저 온몸에  
힘을 주고 파도를 노려보며 베티고 서 있기를 하  
다가는 파도에 휩쓸려 찬 물을 한바탕 들이키기  
일쑤입니다. 파도에 넘어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  
은, 그것이 다가오는 속도와 높이를 잘 관찰해서  
정확히 그것이 내 몸을 통과하려는 찰나에 파도의  
리듬에 맞추어서 몸을 살짝 띄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온전히 파도에 맡겨야 합니다. 온 우  
주가 흐름을 멈춘 듯한 몇 초의 시간이 지나고 나  
면 마치 맘씨 좋은 파도가 실어 날라준 듯 내 두  
발은 안전하게 착지해 있습니다.

밀려오는 파도를 타 넘으면서, 파도를 거슬러  
면 바다로 유영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그 날까지!

대중 스님들, 애쓰고 또 애쓰십시오. ●

## 불교와 서양사상의 심신론 비교 고찰

주 오 / 대교과

### 목 차

1. 서론
2. 서양사상의 심신이론
  - 1) 심신이원론
  - 2) 유물론적 환원주의
3. 불교 경전에서 보는 마음에 대한 해명
  - 이원론과 환원주의를 넘어서
  - 1) 심신의 상호연결성
  - 2) 세계를 구성하는 마음
  - 3) 唯識과 심신이론
    - ① 감각기관과 외부세계의 비실체성
    - ② 識의 전변설
4. 결론

### 1. 서론

최근 마음에 관해 출판된 간행물의 대부분은 뇌과학과 연관된 책들이다. 많은 저작물이 뇌의 해부도와 함께 각 부분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연구성과들을 소개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공통된 전제를 깔고 있는데, 인간의 몸, 특히 뇌 속에서 일어나는 생리적, 화학적 작용들이 마음을 표상하며, 첨단과학의 성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마음이 뇌조직으로 대표되는 물질들과 원칙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서양학문들이 마음을 물리적, 생물적인 것으로 환원시켜 설명하려는 경향을 갖는 반면 불교는 마음을 물질로 환원시키거나 독립적 실체로 간주하지 않는다. 불교 경론들 대부분이 마음의 문제를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데, 심신을 포함한 모든 현상들이 서로 연기한다는 緣起說도 그렇지만 대승불교 경론들 중 특히 唯識論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고찰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유식설은 인간의 심신을 포함하여 인간과 세계를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론인데 그 논점을 명확하게 이해한다면 현대 심신문제를 들러싼 제학문들의 의견 차이와 그 전제들을 불교적 입장과 대비시켜 보다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마음을 둘러싸고 내려온 서양의 학문적 성과들 중에서도 심신이원론과 유물론적 환원주의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 이론들의 문제점을 간략히 짚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연기설과 유식설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 2. 서양사상의 심신이론

#### 1) 심신이원론

심신이론에서 큰 흐름 중의 하나는 인간을 몸과 마음이라는 두 가지 전혀 다른 속성을 가진 실체의 결합으로 보는 견해이다. 몸과 마음이라는 두 가지 실체는 신체 안에서 서로 결합되어 있다고 생각되었는데 이것이 심신이원론이자 실체이원론(substance dualism)이다.

이 이론은 본질이 전혀 다른 두 실체가 만나서 하나의 인간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그 교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지만 지금까지 설득력 있는 해답을 주

지 못하고 있다. 몸과 마음이 본질적으로 다르면 서도 상호 교통을 한다는 이론은 물질이 아닌 정신이 물질적인 성질을 가지는 몸과 서로 인과작용을 통해서 감각하고, 사고하고, 운동을 하는 등의 사건을 이루어 낸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과학과 상충되는데, 열역학 제1법칙에 의한다면 물리적 사건에 대한 원인은 반드시 또 다른 물질적인 사건이어야 한다. 즉, 물리적 사건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 물리적 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신체의 운동과 같은 사건은 하나의 물리적 사건으로서 이 사건의 원인은 또 다른 물리적 사건이어야 하는 것이지, 정신과 같은 비물리적 사건이 원인이 될 수는 없다. 그러한 가정을 허용한다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비물리적 가정물들을 인과작용의 원인으로서 고려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은 결국 현대의 모든 과학이 기초하고 있는 지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낳게 될 것이다.

#### 2) 유물론적 환원주의

유물론적 세계관은 비물질적인 마음이라는 존재를 존재계에서 완전히 제거해 낸다는 제거적 유물론의 형태로 나타났다. 세상의 모든 현상들은 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물질적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은 선행하는 또다른 물질적 현상이지 비물질인 마음이나 영혼과 같은 것이 아니다. 마음은 물체들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물체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도 없고, 마음이 또 다른 마음과 인과적 관계를 맺는다는 등의 기술도 할 수 없다. 즉, 비물질적인 마음은 인과작용 속에서 아무 작용도 하지 않는다. 인과적인 연쇄작용 속에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실체는 사실상 제거해도 상관없다. 제거주의자들에 의하면 통속 심리학의 개념들 즉, 믿음, 욕구, 두려움, 아픔, 기쁨 등은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한 허황한 개념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제

거되어야 한다. 그들은 만약 신경과학이 앞으로 더 충분하게 발전한다면 반드시 새롭고 적합한 개념의 틀 속에서 우리의 내적 상태와 활동에 대해 기술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 이러한 관점은 심성적 현상들을 물리적 인과관계에 수반되는 단지 그림자와도 같은 부수적인 현상으로 만들거나 혹은 두뇌 활동으로 완전히 환원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충분하고도 설득력 있는 해명이 제시되어야 한다.

첫째, 의식의 직접성 문제이다. 통증과 같은 정신적 현상은 어떤 매개물도 없이 바로 주어진다는 점에서 직접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오류 불가능한 직접적 지식으로서 이러한 직접성은 분명 1인칭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심적 상태들이 매우 사적이고 특권적인 인식적 근접성을 가진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특성은 심성적인 성질들이 물리적인 현상들과 명백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의식의 비공간성 문제이다.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점이 신체와 마음을 구분짓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할 때 정신적 현상이 비공간적이라는 것은 의식과 물질을 구별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셋째, 의식의 지향성과 감각질의 환원 불가능성 문제이다. 우리의 정신적 삶이 두뇌 속에서 진행되는 많은 화학적, 전기적 작용과 같은 물리적 성질들로 기술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동시에 그 속에서 진행되는 경험, 사고, 감각, 욕구와 같은 것은 단순히 물리적 과정으로 환원될 수 없다. 감각질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시각적 느낌과 소리, 향, 맛과 같은 감각적 질감이 신경회로 속의 신호들로 환원될 수 없기 때문에 감각질을 환원 불가능한 현상으로 남겨두고 있는 설정이다. 이와

같이 환원되지 않는 사례들이 있다면 이 이론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3. 불교 경전에서 보는 마음에 대한 해명 - 이원론과 환원주의를 넘어서

#### 1) 심신의 상호연결성

오래 전부터 심신을 둘러싸고 수많은 논쟁들이 있어 왔지만 그들의 주장은 대체로 이원론과 유물론적 환원주의, 이 두 가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불교의 입장에서는 그 어느 쪽도 아닌 중도적 입장을 취한다. 마음이 본래적으로 존재하는 실체 혹은 사물이라는 이원론적 관념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물질적 현상들이 그 사물 자체라는 유물론적 입장도 거부한다. 불교의 연기론에서 존재와 생성은 모두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지 만 사물이나 실체로서 연관되는 것은 아니다. “이 것이 있으면 그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나므로 그것이 생겨난다. 이것이 없으면 그것이 없게 되며, 이것이 소멸하므로 그것이 소멸한다.”는 연기법에서의 ‘이것’은 사물이나 실체적 존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연기란 사물의 근본적인 상호 의존 관계, 비실재성을 의미한다. 연기란 공성(空性)이다. 따라서 중도적 관점에서는 정신적 사건들 역시 물질적 사건과 마찬가지로 드러나는 현상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신적 현상과 물질적 현상이 동일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환원론자들이 제시하는 어떤 특정한 정신적 현상들과

특정한 신경 회로들의 상관성은 단지 정신적 현상들이 뇌의 과정들에 의존하여 발생한다는 점만을 증명하는 것일 수 있다. 불교는 정신적 현상과 물질적 상태가 서로에게 인과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현상적으로 신체와 마음 사이에 구별이 있다는 상식적 견해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것은 종류의 차이라기보다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 2) 세계를 구성하는 마음

불교는 마음과 물질 사이의 절대적 실체이원론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세계가 마음 밖의 세계가 아님을 주장한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세계는 없다. 세계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우리의 감각과 생각 그리고 욕망에 의해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의도적으로 구성된다. 우리는 세계를 만든다. 그리고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음으로써 파괴시킬 수 있다. 이 말은 우리와 세계가 실재하지 않는다는거나 환상일 뿐임을 뜻하지는 않는다. 대상은 존재한다. 하지만 그 대상에 대한 우리의 지각이 그 대상의 구성 요소이며 본질적인 부분이다.<sup>1)</sup>

불교의 관점은 사물이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라 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각도에서 보기 때문에 ‘사물’이 된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다만 ‘우리가 세계를 보는 방식’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내용은 불교 초기경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세계를 十二處<sup>2)</sup>로부터 연기한 세계라고 본 것이

바로 그것이다.

“고타마시여, 소위 一切라는 것은 무엇을 이름하여 일체라고 하니이까?” 부처님께서 바리문에게 이르시 되, “일체란 十二處를 말함이니, 눈과 뺨,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촉감, 뜻과 법이다. 이것을 이름하여 일체라고 하느니라.”<sup>3)</sup>

붓다가 세계 일체를 마음 밖의 세계로 보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내용의 경전은 아함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세간은 十二處와 그로부터 연기한 六識, 六觸, 六受라고 설명하는 경이 있는가 하면, 세간은 六入處라고 하는 경도 있다. 자신과 세계는 이와 같이 마음에서 연기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알지 못하는 우리는 세계 구성의 바탕이 되는 십이처를 欲貪으로 취착하여 주관으로서의 존재 [자아]와 객관으로서의 존재 [세계]로 분별한다.

#### 3) 唯識과 심신이론

유식설은 ‘오로지 識만 있고 境은 없다[唯識無境]’고 주장한다.<sup>4)</sup> ‘유식무경’이란 식과 경, 즉 정신적 현상과 물질적 현상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원론과 오로지 물질로 이루어진 객관적 세계만이 존재한다는 유물론을 비판하고 있을 뿐이다. 唯識이라는 주장은 오로지 정신적 현상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현상에서 독립된 물질적 현상이 가능하지 않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타당하다.

의식과 의식이 투영하는 세계에 대해 질문을 던짐으로부터 출발한 유식론이 우리의 심식이론과

더 나아가 세계에 대해 어떤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감각기관[根]으로 대표되는 신체와 나를 둘러싼 외부세계[境]의 실체적 지위를 고찰하고 나서, 識의 전변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 ① 감각기관과 외부세계의 비실체성

유식에서 감각기관으로서의 根은 현량의 직접적 대상이 아니며, 다만 현량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으로서 설정된 것에 불과하다. 사실상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識일 뿐이지 우리의 五根이나 두뇌와 같은 것들이 아니다. 根이란 인식을 야기시키는 능력으로 설정된 일종의 가설로서 효용을 갖는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 실재하는 존재로서 실체화할 수 없다. 따라서 根은 현량의 대상이 아니며, 우리의 의식을 떠나서 실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성유식론에서는 오른을 종자나 공능(功能)으로 설명하였으며, 이것은 오른이 식을 떠나 실재하는 色이라는 생각을 논파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眼 등의 根은 現量으로 얻을 수 없다. 능히 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比量으로(추론하여) 이것이 있음을 아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功能일 뿐이지 외적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다. 외부의 유대색은 이치가 이미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만 내부의 식이 변현한 것이어야 한다. 眼 등의 識을 일으키는 것을 眼 등의 根이라고 이름붙인 것이다.<sup>5)</sup>

이와 같이 유식의 견해에 의하면, 심성적 현상들

1) Johansson, 「초기불교의 역동적 심리학」, 경희대학교 출판국, 2006, p.50.

2) 十二處란 內入處(眼耳鼻舌身意), 外入處(色聲香味觸法)로서, 보통 내입처는 감각기관, 외입처는 감관의 대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일체 세간이 십이처라고 할 때, 내입처와 외입처는 지각행위와 지각대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십이처는 인식작용이 이루어질 때 주관적 요인과 객관적 요인으로서 인식이 성립하는 두 계기가 된다. 내입처와 외입처, 그리고 이들을 緣하여 생긴 識이 결합하면 觸이 일어난다. 識이 일어나야만 비로소 주관이나 내외가 구별되기 때문에, 식이 생기기 이전의 상태인 십이처는 세계와 자아가 구별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주관적 요인과 객관적 요인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3) 『雜阿含經』 제13편(大正藏2.91a) 「一切經(雜阿含319)」

4) 유식설에서 識이라고 할 경우 이것은 정신현상 내지 그 기능을 통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成唯識論』 제1권(大正藏31.4a~b) 眼等根非現量得以能發識比知是有此但功能非外所造外有對色理既不成故應但是內識變現發眼等識名眼等根。

을 두뇌로 완전히 환원시키는 환원주의는 적절하지 않다. 환원주의를 비롯한 유물론은 사실은 그 연원을 소박한 상식적 실재론에 둔 것으로 작용으로서의 근을 실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識 이외에 境이 없다고 주장한 것은 境, 즉 색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색법이 식을 떠나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재물이 아니라는 뜻이다. 인식 주체와 대상의 구분은 식의 분화와 분별에 의해 비로소 발생한다. 인식 과정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국한되고 왜곡된다. 먼저 과거에 어떤 경험을 쌓아 왔는가, 즉 아뢰야식에 어떤 업종자(業種子)들이 저장되었는가에 따라서 인식 세계가 결정되고 개인이 보고 듣는 세계가 결정된다. 이 세계는 말나식(末那識)에 의해 자기중심적으로 왜곡하여 인식되고, 다시 제6식인 의식(意識)에 의해 성격 혹은 습성으로 인식이 제한되고 고착되게 된다. 이 과정이 유식이 규명한 인식의 왜곡과정이다.

## ② 識의 전변설

유식설에서는 상호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에서 인식 작용을 緣이라 하고, 관계하는 것이라는 의미로서 인식하는 주관을 能緣이라 하며, 관계되는 것이라는 의미로서 인식되는 대상을 所緣이라 부른다.<sup>6)</sup> 능연은 다시 見分이라 하고, 소연을 相分이라고 한다. 능연과 소연의 바탕이 되는 식이 인식 과정에서 두 부분으로 나뉘어 활동하는 것을 유식에서는 轉變(parināma)이라고 부른다. 유정들은 식의 한 부분인 견분을 자아라고 여겨서 이에 집착하고, 또 다른 부분인 상분을 주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재하는 대상[法]이라고 분별하여 집착한

다. 자아·법으로 상정된 것들은 실체가 없는데도 방편상 그렇게 개념 지은 것이다. 이처럼 자아와 법을 가설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식전변(識轉變)이다.

變이란 식체(識體)가 轉하여 二分으로 似現(가상으로 현현)하는 것을 말한다. 상분과 견분은 모두 자증 분에 의지해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 이분(二分)에 의거해서 자아와 법을 시설한다.<sup>7)</sup>

제8식인 아뢰야식은 의식과 제7말나식의 모든 활동의 혼적들을 종자로서 간직한다. 아뢰야식의 종자는 훈습과 현행의 과정을 반복하며 변현되는데 이 변현의 결과는 種子와 器世間, 그리고 身體이다.

전변한 결과 중 하나인 기세간은 우리가 의지해서 살고 있는 세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가리킨다. 기세간은 우리의 몸, 마음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 물질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업들이 모여 이룬 공동의 업이 남긴 종자가 현행하여 변현된 세계이다. 기세간이 아뢰야식의 변현 결과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우리의 식 즉, 마음과 동떨어져 존재하는 것 이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세계는 주관과 객관의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는 것이며, 주체와 객체는 식의 집착과 업의 현행 속에서 단지 현상적으로 분화되어 보일 뿐이다.

종자, 기세간과 함께 신체가 아뢰야식이 변현한 결과라는 것은 감각 능력을 가진 신체가 아뢰야식 즉, 심층의 의식이 현현한 결과물이고 根이나 境으로 나뉘기 전의 본래적 마음을 근거로 하여 구성된다는 것으로서 신체와 마음은 정신과 물질이라는

두 가지의 완전히 이질적인 실체로 구분될 수 없다. 정신적 현상과 물질적 현상으로 대비되는 우리의 신체와 마음은 그 대립구도가 깨어지고 다만 식이 변화한 결과물일 뿐이라는 점이 드러난다.

이와 같이 자아와 외부 세계의 객관적 실체성을 부정하는 유식설에서는 나와 세계, 인식 주관과 객관, 根과 境, 신체와 정신의 대립이 다만 현상적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점을 밝혔다. 식의 전변과 아뢰야식의 종자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신에 관한 경험적 사고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묻게 한다. 각각의 개인과 그 개인을 둘러싼 세계가 식의 변현 속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볼 때, 비로소 마음과 신체가 이질적인 실체들 혹은 실체와 속성으로서 분리되지 않고 또한 개인과 세계가 동떨어진 존재들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 4. 결론

이 글에서는 현대의 심신이론과 불교의 학설을 비교·검토하면서 서양의 심신론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불교적인 해명을 여러 각도로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고찰은 서양학문과 불교 경론이 각기 지니고 있는 기본전제들에 대해 재고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불교 사상이 적절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심도 깊은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소통이 꾸준히 행해질 때 불교의 사상이 현 시대에도 적용 가능한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며, 또한 현대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명하는 적절한 방법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제3회 전국승가대학 학인논문공모전

에서 은상을 수상한 논문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논문의 원본을 읽고 싶으신 분은 운문사 홈페이지 ([www.unmunsa.or.kr](http://www.unmunsa.or.kr)) 자료실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참고 문헌

1. 『雜阿含經』(大正藏2)
2. 『解深密經』(大正藏16)
3. 『阿毘達磨俱舍論』(大正藏29)
4. 『中論』(大正藏30)
5. 『成唯識論』(大正藏31)
6. 『唯識二十論』(大正藏31)
7. 『쌍웃파니까야』, 한국빠알리성전협회, 2000.
8. 김묘주, 『유식사상』, 경서원, 2000.
9. 김재권, 『물리주의』, 아카넷, 2007.
10. 다케무라 미카오, 『유식의 구조』, 민족사, 1995.
11. 마티유 리카르·트린 주안 투안, 『손바닥안의 우주』, 샘터사, 2003.
12. 무르피, 『불교의 중심철학』, 경서원, 1999.
13. 에드워드 콘즈, 『불교사상과 서양철학』, 민족사, 1994.
14. 장프랑수와 르벨·마티유 리카르, 『승려와 철학자』, 이끌리오, 2004.
15. 한자경, 『유식무경 유식 불교에서의 인식과 존재』, 예문서원, 2004.
16. Johansson, 『초기불교의 역동적 심리학』, 경희대학교 출판국, 2006.

6) 인식 과정에 대한 유식의 해석은 통상적으로 인식 주체와 독립적 객관대상의 관계를 기술한 것이 아니다.

7) 『成唯識論』 제1권(大正藏31.1a~b) 變謂識體轉似二分 相見俱依自證起故 依斯二分施設我法

| 想 |

# 信 心

아원 / 사미나파





보통 사람들을 기준으로 우리 인생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20세 전까지는 부모님 곁에서 살아야 하고 30세가 넘게 되면서 가정이나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보면 대략 10년 정도(20~30세)가 나온다. 그때 무엇을 했는지 혹은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이 책에서는 그런 '인생의 황금기'에 인도 캘커타의 '마더 테레사의 집' 산하 구호단체인 '프렘 단'과 '칼리가트'에서 병들거나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利他的 삶을 살은 이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 젊은이들은 거의가 여행자들이다. 일상을 탈출하여 새로운 경험을 원하던 이들이 돌아가서도 잊지 못하고 다시 오곤 한다. 무엇이 그들을 부르는 것일까? 이유들이 사람만큼이나 많겠지만 '함께 하는 따뜻함'이라고 정의해 본다.

"… 세상이 따뜻해지기를 바란다면, 먼저 조금만 더 따뜻해지세요. 그도 말하더군요. 우정은 내가 주면 그는 얻고 나는 잃는, 그런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구요. 퍼주고 나면, 진정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퍼주고 나면 어느새 다시 고이게 하는 힘. 아직도 세상에 대해 희망을 가져보는 건 바로 그 힘 때문이겠죠."

"캘커타에서 내 인생이 바뀌었어… (중략) 형한테서 배운 수업을 영원히 잊지 않을 거야. 인내하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 자신감, 그리고 아주 아주 큰 사랑. 형이 내게 준 것들 말이야. 준, 변하지 말이야 해. 형은 내게 아주 특별한 존재니까! 난 믿어. 우리의 인생이 우리를 언젠가 다시 만나게 할 거라고…"

(중략) 열심히 일할 거야. 내가 만난 모든 불행하고 벼랑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을 위해서 말이야."

친구(도반)는 조용조용히 다가와서 어느 순간에가 사람을 변화시킨다. 내가 알이들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단어와 몸짓으로 나를 깨닫게 한다. 遇善知識.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발원하는 그 선지식이 멀리 어느 산에 있는 도인이 아니라 나와 항상 부대끼는 친구라고 감히 말해 본다.

이 책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없다. 단지 비슷비슷한 착한 사람들이 나온다. 자기 방식이 옳다고 고집하는 이도 없고, 나만을 바라보라고 집착하는 이도 없다. 얘기를 들어주고 함께 울고 웃을 뿐, 있는 그대로의 물살에 몸을 맡긴 채 옛날 위에서 햇살을 즐기고 있는 느낌이다. 우리 학인 스님들은 어떠한가? 수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도반을 너무 멀리하거나 공부인의 본분을 망각한 채 도반만을 생각하고 있진 않은가?

"… 언제 운명을 달리 할지 모르는 환자들이므로 누군가 밤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겨우 반나절을 환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뼈밖에 남지 않은 에이즈 환자들, 일부는 반쯤 치매 상태에 빠진 사람들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한 일을 하듯 환자들과 거리낌없이 포옹하는 오스カル이 저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우리가 '봉사'라는 단어를 접할 때 흔히 떠오르는 장면 중의 하나이다. 초보 봉사자는 병과 어떤 상황이 먼저 보이고, 베테랑이 되어갈수록 사람이 먼저 보인다. 그래도 오스カル과 같은 능력을 갖기는 쉽지 않을 듯싶다. 이는 '봉사'라는 相조차도 깨고 수행으로 승화된 모습이다. 내가 우위라는 생각 없이 평등하게 오히려 더 下心하면서 낮은 곳으로 임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어려운 마음가짐으로만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스테판은 이런저런 약품들이 가득 든 손가방을 들고 서더 스트리트로 나갔습니다. (중략) 손발에 상처를 입은 거지 아이들, 맨발로 인력거를 끌다가 상처를 입은 럭셔리, 야채를 썰다가 손을 벤 가게 주인들이 스테판을 찾아왔습니다. (중략) 그저 사소한 상처를 소독해주고, 필요하면 붕대도 감아주고 그런 정도의 일이었습니다…."

스테판의 '봉사'는 어릴 적 할머니의 '약손'을 떠올리게 한다. 배 아프다는 손주를 무르팍에 뉘이고 높낮이가 거의 없는 주문(?)과 함께 배를 문질러 준다. 손주는 할머니에게 온갖 이야기를 하다가 잠이 들고 잠이 깨 때쯤엔 셋은 듯이 나아 이내 활개치고 다닌다. 치료에 필요한 것은 '1%의 메스(Mess)와 99%의 자비·사랑'이 아닐까?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꼭 한번이라도 '봉사'를 해보길 바란다. 처음엔 두렵고 힘들 것이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지만 그 중에서 참 따뜻한 나를 발견할 것이다. 누군가와 친구가 되어 있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

## 내 마음의 소음

이 강옥 / 영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보고 듣는 것은 육촉입(六觸入)을 대표하는 것이라 합니다. 보고 듣는 것은 지금 이곳의 삶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지요.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다만 여기서 보고 듣는 지금만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우리의 실존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는 핵심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듣고 있는 나 자신의 자성을 확철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깨치는 것임을 선지식들은 언제나 강조하시는 것이겠지요.

지금 내가 보고 듣는 것 그 어느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잘 생긴 모습이나 못 생긴 모습, 부드러운 소리나 거친 소리, 모두 다 그 자체로서 소중한 것입니다. 잘 생긴 모습과 부드러운 소리는 좋은 것이어서 훈영하고, 못 생긴 모습과 거친 소리는 좋지 않은 것이어서 배척하는 자세는 근본적으로 분별심에서 우리난 것이기에 극복되어야 하겠습니다.

요즘 상영되고 있는 커스틴 쉐리던 감독의 〈어거스트 러쉬(August Rush)〉라는 영화를 생각합니다. 어린 주인공은 태어나자마자 부모님과 헤어져 고아원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음악을 하는 부모님으로부터 소리를 듣고 소리에 마음을 실어 보내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어린 주인공은 뉴욕이라는 거대 도시의 시끄러운 도로나 어두운 골목길에서 들려오는 그 어떤 소리를 듣고도 감동하고 거기서 음악적 영감을 얻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온갖 소리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어 환희심을 갖게 되니 그야말로 깨달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세상은 온갖 좋은 소리로 가득 찬 국락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음악으로 승화되었고, 마침내 부모님을 만나는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보통 사람들에게 세상의 모습과 소리는 여전히 차별적으

로 인식되게 마련입니다. 분별심을 떨쳐내지 못한 우리들에게 세상은 동질적이지만은 않게 지각되는 법입니다. 안타깝지만 그게 우리 중생들의 엄연한 현실 감각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보고 듣는 것 중에서 사람의 자유의지를 더 존중해 주는 것은 어느 쪽일까 하고 말입니다. 보기 싫은 것은 눈만 감으면 보이지 않는데, 귀를 막는 것은 듣기 싫은 소리를 차단하는 데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귀로 들리는 바깥의 소리야말로 우리를 꿈작 못하게 옥죄는 굴레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7,80년대 대학생활을 했던 우리들에게 온 세상은 타도해야 할 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분노와 저주의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술자리에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대부분 욕설이거나 고함이었지요. 거리에는 온갖 선언적 구호가 플래카드와 함께 난무하고 '와' 함성이 일어나면 곧 '탕탕탕' 최루탄 터지는 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 했습니다. 일상의 대화도 살벌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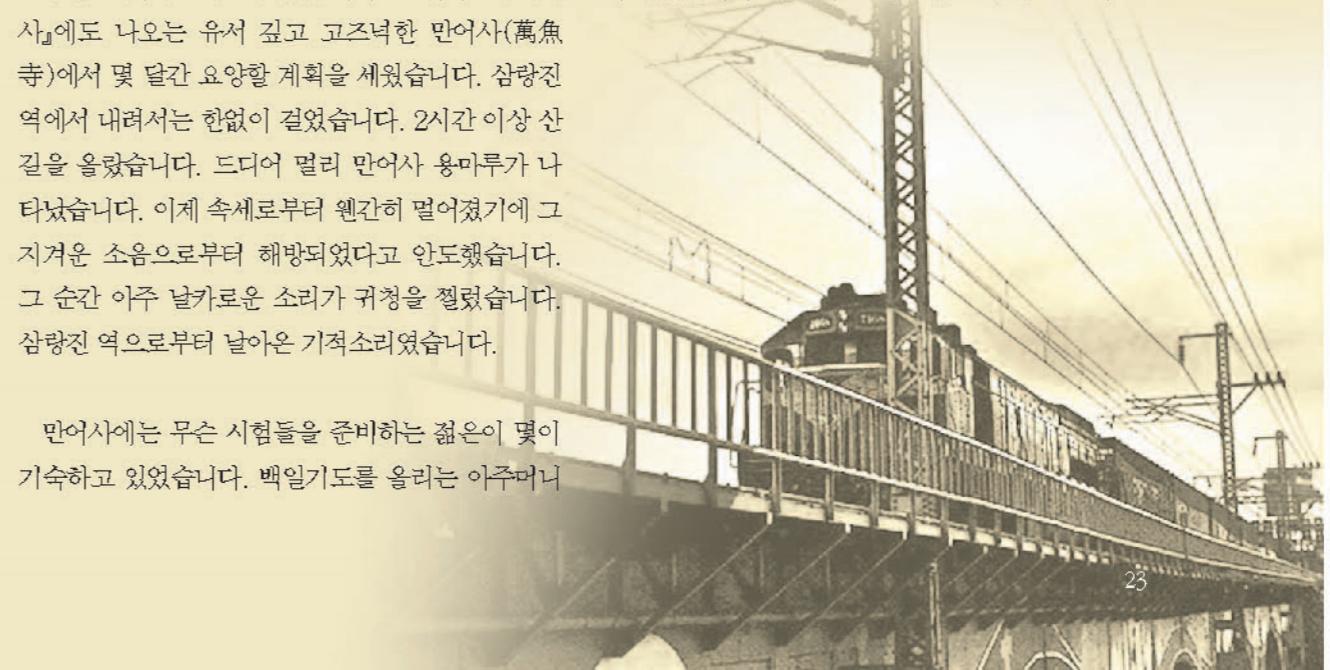
몇 년간의 서울생활에서 나는 소음 강박증에 걸렸습니다. 세상의 소음에 의해 내가 고문당하고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어떤 소음도 나를 괴롭히지 않는 조용한 데서 좀 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에도 나오는 유서 깊고 고즈넉한 만여사(萬魚寺)에서 몇 달간 요양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삼랑진 역에서 내려서는 한없이 걸었습니다. 2시간 이상 산길을 올랐습니다. 드디어 멀리 만여사 용마루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속세로부터 웬간히 멀어졌기에 그 지겨운 소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안도했습니다. 그 순간 아주 날카로운 소리가 귀청을 찔렀습니다. 삼랑진 역으로부터 날아온 기적소리였습니다.

만여사에는 무슨 시험들을 준비하는 젊은이 몇이 기숙하고 있었습니다. 백일기도를 올리는 아주머니

들도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온 기적소리는 새로운 소음 고문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을까요. 만여사에서 생활하면서 나는 그때까지 결코 경험하지 못한 더 강력한 소음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옆방으로부터 밤낮 없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속세에서는 적어도 잠잘 때는 조용했는데, 만여사 고시생들은 밤낮이 없었습니다. 사워가 조용해지는 깊은 밤이면 옆방의 소리는 내 육신의 감각을 꼭꼭 쬐르며 고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혼자 해인사 앞 매화 산을 오른 적이 있습니다. 정상까지의 길은 무척 가팔랐습니다. 처녀 총각들은 가파른 길을 오를 때 서로 손을 잡아 이끌어 주며 깔깔대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듯하게 보였지만, 곧 산 속의 정적을 깨뜨리는 그 소리가 성가시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발걸음을 빨리하여 그들로부터 멀어지려 하였습니다. 좀 멀어졌는가 하면 곧 앞서가던 다른 등산객 무리를 만나게 되니 소음은 마찬가지였지요. 어느덧 정상에 올라 내려가는 길을 굽어보았습니다. 등산객 무리들이 점심을 먹는 틈을 타 서둘러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인적이 전혀 없는 길을 선택하여 혼자 내달았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나만의 오롯한 산행이 이루어졌다 여겼습니다. 수목이 걸려준 맑은 공기를 깊이 들





이켰습니다. 산길 주위의 온갖 나무와 풀들에게 눈을 주었습니다. 어느덧 나는 상념의 세계로 깊이 자백질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혼자만의 공간에서 내면의 고요를 느껴보는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가. 내친 김에 더 깊이 들어가자. 그래서 세상의 혼적을 깡그리 지워버리자.

소란스럽게 굴던 사람들 무리로부터 멀어져 지극한 정적의 세계로 들어간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전혀 종류가 다른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불규칙한 나의 숨소리인 듯하더니, 심장의 쿵쾅거림으로, 육신 속의 물이 출렁거리는 소리로 들리다가는 육신의 조각들에서 일어나는 공명으로 들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와 함께 내가 한동안 망각하고 있었던 과거의 온갖 형상과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결코 떠올리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모습들이었습니다.

끼니 때마다 형제들보다 더 먹겠다고 빌벼둥쳤던 가난했던 어린 시절, 처절하게 염세주의가 되었던 고등학교 시절, 자취방에서 현실을 저주하기만 하던 대학시절, 마침내는 총기 사고로 전우들이 죽어간 군대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 어느 시점에서도 나는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자기혐오의 파도가 지나가자 어느새 남들에 대한 불만과 비난이 치솟았습니다. 온갖 사기꾼과 깅패들, 탐욕의 화신들. 그런 사람들

은 나와 직접 관계가 없었지만 그렇게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나에게 직접 다가와 나의 자존심과 인격에 상처를 입힌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자 분노와 불만은 엄청나게 증폭되었습니다. 다시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고 두려워졌습니다. 도대체 나란 인간은 이 세상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어떤 이로움을 주었던 말인가. 계걸스럽게 나의 잇속만을 채우기에 급급하지 않았는가. 괴로워서 나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나의 입에서 나간 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왔습니다. 그것은 포악한 짐승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를 욕하고 미워하고 변명하는 소리들이 크게 들려왔습니다. 주위의 정적은 그 질책의 소리가 천둥처럼 커지게 만들어 나를 고문하게 했습니다. 나는 달음박질을 쳤습니다. 그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으로부터 도망쳐야 했습니다. 청솔가지에 얼굴을 긁히고, 넘어져 무릎이 까지는 것도 모르고 달렸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먼 곳으로부터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등산객들의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나의 내면의 소리와 뒤섞였습니다. 그리고 분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처음 매화산을 오를 때 등산객들의 소리는 나의 사색을 방해하던 훼방꾼이었지만, 달음박질 뒤에 만난 등산객들은 내 마음의 지옥으로부터 나를 구해준 해방자였습니다.

송광사 수련회 때의 일입니다. 앞에 앉은 중년 남자는 얼굴이 검고 입도 약간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우람한 손발을 잠시도 가만 두질 못했습니다. 바닥을 쿵쿵 치거나 잔기침을 하고 긴 한숨을 짧짬이 뿐었습니다. 술과 담배를 끊기 위해 참석했다는 그 분은 금단 현상 때문에 잠시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요히 나를 돌아보고 나를 되찾으려고 참선을 시작하려는 시점에서, 나는 도반들이 내는 소리와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그다음 해 수련회 때는 옆 자리에 기공 수련을 하

다 들어온 분이 앉았습니다. 그는 화두를 들지 않고 경혈을 따라 자기 몸의 기를 돌린다고 했습니다. 기운동은 아주 뚜렷하게 온몸으로 감지되는 모양이었습니다. 화두를 들든 기공을 하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일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돌리는 기 덩어리가 몸의 약한 부분에 이르면 통증이나 특별한 경련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특히 위가 좋지 않아 기 덩이가 위 근방을 지나가면 '결' 하는 트림이 나왔습니다. 기의 순환은 상당히 빨라져 '결, 결' 하는 소리는 1초에도 몇 번씩이나 나왔습니다. 그분은 기 운동에 몰두하여 자기 몸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만 나는 그 소리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대해 이렇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저 자신을 책망하느라 수련 시간 대부분을 허비했습니다.

톈진 팔모 스님이 운문사를 방문하셨을 때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공동생활을 하면 옆 사람이 모난 돌로 느껴지는데, 그 모난 돌이 처음에는 아프게 나를 찌르지만 결국 나의 모까지 둑글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존재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감동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또 '장애 속에서 해탈을 얻으라'는 성현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동안 주위에서 들려오는 그 소음조차도 나의 모를 둑글게 해주는 소중한 존재라는 가르침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모난 돌'이 내 주위의 사람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모난 돌은 바로 내 마음 속의 타자임을 알게 됩니다.

깊은 산으로 들어가 참선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아랫동네의 풍악소리를 들었다는 천태(天台)스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스님은 그 풍악소리를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에 상관없이 수행에 몰입하려 인간힘을 다 썼습니다. 9년이 지난 어느 날 그 풍악 소리는 뚝 그쳤습니다. 아랫동네로 내려가 그동안 자기를 괴롭힌 풍악소리를 누가 내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동네 누구도 그런 소리를 낸 적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천태스님은 알게 되었습니다. 9년 내내 스님을 괴롭혔던 풍악소리는 바로 스님의 마음속에서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마음의 소음은 깨닫기까지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지금 나를 괴롭히는 온갖 소리는 나의 소리요, 내가 낸 소리의 메아리겠지요. 온갖 작은 소리부터 천둥에 이르기까지 나의 소리 아닌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둥소리를 들으며 나의 내면을 돌아보라는 「주역」의 말씀이 그렇게 간곡하게 들리는가 봅니다. 언제쯤 내 마음의 소리에 놀라지 않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갈 수가 있을지요? 소리 없는 정적에 안주하기보다는 들려오는 온갖 소리에도 자유자재하는 나의 꾸뭇한 모습을 꿈결인 양 그리워합니다.

이강욱 교수님은 1956년 김해 낙동강 가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남대학교 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미국 예일대학교 비교문학과 방문교수로 연구했다. 현재 영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로 있다. 저서로는『한국야담연구』,『조선시대 일화 연구』,『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꽃병을 든 아빠 아이와 함께 크는 이야기』등이 있다.

## 삶이 바로 수행인 거야

- 16회 동문 명심 스님 -

동환 / 사집과



한 고랑을 훑고 나와 돌아보면 어느새 처음처럼 새빨갛게 익어 있는 고추들 때문에 우리들의 얼굴은 고추보다 더 빨개졌고 담아 놓은 자루의 무게만큼이나 어깨도 무거웠다. 그렇게 땀 흘려야 했던 지난 여름과 가을, 하지만 곳간 가득 자리 잡은 붉은 고추를 바라보니 마음엔 한가득 즐거움이 차오른다.

지난 여름의 뜨거운 열기는 이 가을을 더욱 눈부시게 물들이고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은 선배님을 찾아가는 우리들의 둘뜬 마음을 부드럽게 다독거려 주었다. 운문사와 인연의 끈이 닿아 있는 선배스님

은 대구에서 가까운 군위, 그 마을 끝에 있는 동림사에 계셨다. 16회 졸업생이신 명심스님은 운문사에서 도감 소임을 살 때에 대중 전체가 참 편안했었다며 어른스님께서 추천해 주신 스님이시다.

동림사 도량에 들어서자마자 푸근함과 운문사 못지않은 깔끔함이 느껴졌다. 특히 법당에 계신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가 동림사를 더욱 편안한 도량으로 만들어 주는 것 같았다. 그런 부처님을 닮은 스님의 첫인상 또한 푸근함과 편안함으로 우리를 맞아주셨다.

“예전에는 보리밭 때고 나면 봄방학, 콩밭 때면 여름방학이었어. 밭일이 힘들지?”

전화로 들은 음성만큼이나 편안하게 맞아주시는 스님은 차와 떡을 내어주시며 원두반 이야기로 우리들의 말문을 틔주셨다. 우리보다 훨씬 힘들게 사셨을 것이 분명한 스님 앞에서 고단하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없어서 우리는 웃기만 했다.

“스님께서 소임 사실 때 대중이 편안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뭐 특별히 잘 한 것은 하나도 없어. 그냥 아침저녁으로 일하고, 우리는 벼농사까지 지었기 때문에 아침에 신원리까지 걸어가서 눈에 물 보고, 또 저녁에 한 번 더 확인해야 하는 것이 도감 일이었어. 또 밭일하면서 하우스 재배까지 했으니 바쁘기도 많이 바빴지. 그래도 그 시절에는 힘이 들어도 몸이 고단

해야 딴 생각 없이 수행 잘 할 수 있다고 했거든. 어른스님들이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 우리는 그냥 믿고 따랐던 것 같아.”

치문과 사집을 지나 반이 올라갈수록 점점 무거운 소임을 맡게 된다.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소임이 따로 없지만 특히 대중 전체를 살펴야 하는 소임은 부담이 되기 마련이다. 스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소임을 사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른스님들의 말씀에 의심 없이 쫓아서 일을 수행삼아 하는 것, 수행과 일이 분리된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대중생활을 하면서 아플 때가 제일 곤란합니다. 몸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도 많이 아팠어. 그래도 수술할 병이 아니면 마음에서 오는 거야. 졸업하고 제각기 살다 보면 다 낫더라고. 힘들더라도 출가한 사람이라면 스스로 약을 찾을 줄도 알아야 돼. 그리고 한 가지 잡고 거기 에 빼져 버리는 게 최고야. 강원은 경(經)만 보는 곳이 아니고 마음가짐, 행동거지를 배우는 곳이야. 몸과 마음의 수행이 있어야 중물도 드는 거야. 본인이 선택한 곳의 현실을 바로 볼 줄도 알아야 해. 때를 기다릴 줄도 알아야지. 글을 보든 절하고 주력을 하든 초발심을 잊지 말고 자기만의 수행을 놓지 말고 힘을 키워야 하는 거야. 인도에 있는 티벳 망명정부 다람살라에 간 적이 있어. 6~7세 된 어린 사미 스님들이 독경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었지. 논강하는 모습을 보고는 또 얼마나 신심이 나던지. 의심이나 불만을 갖는 것은 분명 현실을 더 발전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될 거야. 하지만 경 읽고 기도하는 힘은 스스로 이겨 나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돼 주거든.”

명심 스님은 운문사 주변의 5갑사 가운데 하나였던 현재의 대비사에서 13년간이나 불사를 하셨다고 한다. 선방에 방부를 들여 놓고 잠깐 들렀던 대비사 법당에 빗물이 새는 것을 보고 그냥 돌아설 수 없었다고 하시며 부처님께 이곳에서 10년 살면서 도량 정리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발원하신 것이 나름대로 다 이루어진 것 같다고 하셨다.

지금은 보물 834호로 지정된 대비사 법당과 산중 까지 길을 놓고 전기 끌어온 이야기를 해주시는 스

님께 공부하러 떠나지 못한 것에 대한 갈등은 없으셨냐고 여쭤보자 “내가 전 생에 공부할 복을 안 지었나 봐.”라고 하시며 웃으신다. 그 모습

에서 묵묵히 인연에 수순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법당도 도량도 스님에게서도 편안함이 배어 나오는 것은 아닐까 생각되었다.

“저희 학인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세요.”

“다 똑같은 말이지 뭐. 기도 열심히 해. 지나고 보면 강원에 있을 때가 제일 시간도 많고 기도하기도 좋은 때야. 서원을 세워 기도하고 또 신심껏 살고 한번 발심이 끝은 아니야. 계속해서 발심, 또 발심하고 꾸준히 정진해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해. 또 경(經)공부하는 걸 한 줄씩이라도 마음에 새겨 놓으면 살면서 순간순간, 그래서 경에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때가 있거든. 다른 거 없어, 삶이 바로 수행인 거야.”

그저 현실에 수순하면서 바로 지금부터 내면의 힘을 키워 놓으라고 다시 한 번 당부하신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후배들에게 당신의 수행과정을 그대로 보여주신 명심 스님, 아무런 장식 없이 조용히 수행하며 사시는 스님의 모습은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 수처작주 입처개진

隨處作主 立處皆眞

생활이 곧 수행이고, 내가 주인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수행자의 길임을 다시 한 번 마음 깊이 새겨본다. ●



“공부한 이는 모두 내게 와서 물으라.”

설경 / 사미니파



반복되는 이런 계으론 생각과의 지리멸렬한 싸움. 나는 언제쯤 잠자리를 박차고 가볍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럴 때마다 어느 스님의 이야기가 새삼 떠오르곤 한다. 어느 중견스님께서 법문을 하시는 도중에 당신의 은사스님에 대한 그리움과 수행자로서, 스승으로서 그분의 모습을 그려내는 몇 마디의 말씀이었다.

“우리 은사스님의 남다른 습관 중에 하나는 9시가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잠자리에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성철 큰스님, 청담 큰스님 등 당대의 불교계 어른스님들이 모여 불교정화에 대하여 애태고 피끓는 대화를 나누는 곳에서도 9시가 되면 그 방의 모서리 어디에서라도 잠들어 버리셨답니다. 그런데 내가 더 놀랍게 여기는 것은 그때 잠드신 후, 자정이든, 1시든 첫 잠 깬 후에는 절대 다시 잠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첫 잠이 깨고 난 후 새벽 동이 트기까지 5~6시간 동안 하루 분량의 일을 하셨는데, 당신의 일은 주로 화엄경에 관한 집필이었습니다.”

스님이라면 하루 3~4시간 정도 잠을 자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나였다. 하지만 실제로 출가승이 된 지금 수면이라는 것은 내가 생활 속에서 극복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따라서 첫 잠 깼을 때 일어난다는 얘기는 처음이라 무척 새로운 느낌이었다. 그분은 바로 ‘탄허 택성(吞虛 宅成)’ 스님이었다.

새벽 3시, 어두운 밤 정적을 깨뜨리며 도도도도또 똑똑똑, 도도도도또 똑똑똑… 도량석 목탁이 올라가는 소리가 들린다. 이제 일어날 시간이다! 하지만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이불을 푹 뒤집어쓰고 누워 있다. 특히 요즘 같이 추운 날에는 따뜻한 방바닥에서 일어나는 것이 고통스럽기까지 하다. 아침마다

탄허 스님은 1913년 전북 김제에서 태어나 22세 까지 이미 사서삼경을 비롯한 유학의 전 과정뿐만 아니라 도교에 관한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의 경지를 보이셨다. 오대산 상원사에 계신 한암 스님과 3년간 서신왕래로 문답을 주고받은 끝에 출가의 길을 밟게 된 스님은 출가 후 3년 동안 묵언수행으로 용맹정진한 후 15년 동안 한암 스님을 모시고 오대산 상원사에 머물면서 불교 내전(內典)과 선학의 일체를 수학했다.

이후 한암 스님의 유촉으로 유불도(儒佛道)에 통달하지 않으면 누구도 감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신화엄경합론」을 하루 14시간씩 17년에 걸친 눈물겨운 고행과 각고의 수행 끝에 번역하여 ‘인촌문화상’을 수상하였으며, 그 외 수많은 경전을 번역하고 혼토하였다.

제다가 해외의 석학들을 위해 일본 도쿄대학의 동양학 세미나에서 화엄학 특강을 했으며, 타이완의 국립타이완대학에서도 비교종교학에 대한 특강을 하여 세계적인 석학으로 추앙받으면서 동양철학에 대한 그의 지견을 한없이 드러냈다.

“공부한 이는 모두 내게 와서 물으라.”

이 한마디로 스스로의 공부를 보이신 스님은 생전에 당신의 생활규칙을 이렇게 말했다. “하루의 계획은 인시(實時: 새벽 3시)에 있고, 일 년의 계획은 봄에 있으며, 일생의 계획은 부지런한 데 있다. 한숨 자면 그만이지 그 이상 자면 욕심이다. 공부하기가 장 좋은 시간은 새벽이다. 일찍 일어나야 한다.”

누구도 흡내낼 수 없는 스님의 큰 업적이나 큰스님의 모습도 소중하지만 나에게 가장 크게 와닿은 점은 첫 잠을 깨면 두 번 다시 잠들지 않는다는 일상 생활의 한 단면이었다. 사소하고 작아 보이지만 일상의 습관과 생활에서 자신만의 규칙을 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그리고 꾸준히 행했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또한 스님은 시주의 은혜를 무섭게 여기지 않으면 수행자로서 자격이 없음을 항상 강조하셨다고 한다. 심지어 시온(施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월 초하루와 자신의 생일, 그리고 매월 보름에는 밥을 먹지 않고, 운모를 갈아 그 가루를 먹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를 실천하셨다.

왜 저서나 기록을 남기지 않느냐는 주위의 물음에 스님은 늘 “공자도 자신의 말을 남기지 않았고, 부처님도 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옛 성현과 철인들이 다 남긴 말들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속이는 짓은 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물리치곤 했던 스님은 그 많은 강의와 협토 및 번역작업에도 불구하고 당신만의 저서는 한 권도 남기지 않았다. 임종을 앞두고 제자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 달라는 말에 “할 말이 하나도 없다. [一切無言]”는 말씀을 남기고 1983년 세상 71세, 법립 49세로 월정사 방산굴에서 입적하셨다.

스님의 모습은 일상생활 속에서 때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모르는 나에게 일상을 어떻게 수행으로 승화시켜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가까운 바로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신 생활의 방향이자 지침이었다.

출가승으로서 몇 해를 지내면서 수면의 양도 차이가 있지만 ‘파곤하다, 춥다’는 이유로 제시간에 일어나는 일조차 싫어하면서 계으름을 보이는 나의 모습을 떠올리면 얼굴이 열기로 달아오르면서 탄허 스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정말 초능력적인 수행의 힘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더욱 하게 된다. 아직까지 마음으로만 사모할 뿐 함께 하지 않는 내 모습이 부끄럽지만, 언젠가는 출가승단이라는 이 기차에서 두 눈과 발을 바로 둔 당당하고 아름다운 수행자로 설 수 있으리라. ●

## 소통의 길을 향하여 Ⅱ

- 비구니회 유럽연수기 -

정운 / 시인, 보령 세원사



### 3. 이탈리아편

이탈리아는 1·2차 대전을 겪으면서 승전국과 패전국의 자리에 서게 됐으며, 2차 대전 뒤에는 자동차 공업, 패션 산업, 관광 등으로 경제를 재건하였다. 그러나 공업이 발달한 북부 이탈리아와 지중해를 중심으로 농업과 어업이 주를 이루는 가난

없이 미끄러져 가는 이름 모를 운하, 수많은 박물관에 소장된 방대한 예술품을 통해 베네치아의 찬란한 역사의 숨소리를 느낄 수 있었다.

베네치아만(灣) 안쪽의 석호(潟湖:라군) 위에 흘러 있는 118개의 섬들은 약 400개의 다리로 이어져 있다. 섬과 섬 사이의 수로가 중요한 교통로가 되

한 남부 이탈리아가 공존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각 도시마다 특색이 있고 불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많은데 이 중 몇몇 도시의 특색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 ❸ 베네치아(베니스)(7월25일 수요일)

로마, 피렌체와 더불어 이탈리아의 중요한 관광지 중의 하나인 수상 도시 베네치아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지형학상 가장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도시이다. 고딕 양식과 르네상스 양식의 호화로운 베네치아의 옛 궁전들, 곤돌라가 소리

어 독특한 시가지를 이루어, 흔히 '물의 도시'라고 부른다.

베네치아는 19세기 후반부터 이탈리아 경제의 중심인 북부 평야를 배후지로 하는 항구도시로 발전하였다. 상업의 항구로는 서부의 철도역에 인접한 스타치오네 마리티마가 있고, 20세기에 들어와 대안으로 공업 항으로 마르게라가 건설됨으로서 마르게라, 메스트레 등 대안 지역이 근대 공업지대로 발전하였다.

대안의 공업지구는 현재 행정적으로 베네치아 시에 포함되어 있고, 유리 세공업으로 유명한 무라노섬, 국제영화제 개최지 및 해수욕장, 카지노 등으로 유명한 리도 섬 등도 베네치아에 포함된다. 베네치아의 구 시가지는 지난날의 공화국 번영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산마르코 성당, 두칼레 궁전, 아카데미아 미술관 등은 미술, 건축예술의 보고(寶庫)라고 알려져 있다.

가이드에게 대강의 설명을 들은 우리 일행은 나폴레옹이 유럽의 응접실로 칭찬했을 만큼 아름다운 광장인 산마르코 광장에서 산마르코 성당과 두칼레 궁전, 탄식의 다리를 둘러 보았다. 곧이어 앞쪽이 빼죽튀어나와 아름다운 장식으로 치장된 낭만적인 곤돌라를 타고 여유롭게 대운하를 둘러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베네치아만의 정취를 만끽하면서 신이 베네치아에 만준 아름다움에 감탄하였다.

대운하(Canal Grande)는 베네치아의 수상 교통의 동맥이라고 할 수 있다. 총연장은 4킬로미터이며 S자를 거꾸로 놓은 듯한 모양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대운하 양측에 즐비한 베네치아의 화려한 궁전과 성당은 그 건축양식을 통해 베네치아의 영광로운 과거를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다. 베네치아의 상징이자 노천 박물관으로 비교될 정도로 많은 유적이 집중되어 있는 대운하는 수세기에 걸쳐 유명 시인들과 소설가들의 작품의 무대가 되기도 했다.

이 아름다운 도시 베네치아에서 현지식으로 점심 공양을 한 후 우리 일행은 피렌체로 이동하였다.

#### ❹ 피렌체

피렌체는 이탈리아의 국민성과 창의력이 어느 도



시보다 특출나게 빛나는 도시이다. 르네상스의 요람으로 불리는 피렌체는 예술의 도시답게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소중한 유품과 문화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피렌체는 1434년부터 피렌체의 통치권을 잡은 코지모데 메데치가 헌법을 준수하고 평정한 정치를 평안정되고 영화로운 시기를 누렸다. 또 다른 국가들과의 균형 잡힌 외교로 우호관계를 성립하였고, 그의 뒤를 잇는 로렌조 일 마니파코 시대에는 예술과 문학 발전의 절정을 이루었다.

이 시대에 이탈리아는 인문주의가 발달했으며 르네상스로 발전하게 되었다. 피렌체에 성행한 이런 움직임은 학문 연구와 완벽한 미를 추구하는 예술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고, 역사에 빛나는 많은 인물과 학자들이 배출되었다.

예술, 음악, 문학계에서 이룬 발전은 감탄할 만큼 경이로우며 특히 회화, 조각, 건축 분야에는 기히 혁명적인 효과를 발휘해 서양 예술가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이 시대를 빛낸 예술가로는 파올로, 우첼로, 베아토 안젤리코, 산드로 보티첼로, 폴리아울로, 기를란다이오 등 수없이 많지만, 특히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는 피렌체에서 연마한 예술 수업을 바탕으로 서양 예술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명작을 많이 창조했다.

#### ❺ 로마(7월26일-27일)

조식 후 전용버스를 이용하여 피렌체에서 로마로



계에서 가장 큰 성당이다. 총 길이는 주랑 현관에서부터 218미터이다.

장엄한 대성당 안에 처음 들어섰을 때 놀라운 감탄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클 뿐 아니라 가장 놀라운 성당을 눈 앞에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의 크기가 대단하다.

성당의 청동문을 들어서면 후미 오른편에는 미켈란젤로가 20세가 채 되기 전에 완성했다는 걸작 '피에타'상이 있다.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가 마리아의 팔에 안겨진 모습을 조각한 것으로 성모 마리아의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국도의 결제된 표정으로 표현된 미켈란젤로의 명작이다. 또한 이 작품은 그가 서명한 유일한 작품이기도 하다.

이동하였다.

'카푸드 문디(Caput mundi)- 세계의 수도' 로마는 기원 후 2세기 말엽에 이미 인구 백만 명을 돌파한 대도시로 성장하였다. 로마의 플라비 가문이 통치하던 시대는 로마 제국의 가장 영화로운 시대로 콜로세움, 티토의 목욕탕, 도미찌아노 황궁, 도미찌아노 경기장 등이 건립되었다.

영원한 도시 로마는 또 세계 기독교의 산실이기도 하다.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최초로 기독교의 대성당을 건립하도록 지시한 후 여러 대성당이 건립되기 시작했는데 무엇보다도 주목할 만한 것은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의 건립일 것이다. 이후 중세기에 들어서 역대 교황들의 명으로 성당 증축과 개축 공사가 잇달았으며 특히 1400년대에 더욱 활발해졌다.

1400년대 말기부터 교황청의 권한이 막강해지자 유럽 각 왕실과 귀족 가문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이런 이유로 유럽 왕족들과 귀족들은 교황청이 있는 로마에 호화로운 르네상스식 궁전을 잇달아 건립해 서로의 부와 권력을 과시했다.

우리 일행은 로마에서 이틀간 머물면서 바티칸 시국, 바티칸 박물관, 성 베드로 성당, 카타콤베, 콜로세움, 트레비 분수, 진실의 입, 프로로마노, 나보나 광장을 둘러 보았다.

#### 성 베드로 성당

그리스도교의 심장부인 성 베드로 대성당은 전 세



#### 바티칸 박물관

바티칸 박물관은 전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고고학적 소장품을 지니고 있고, 여러 걸작품들과 바빌로니아의 죄기형의 글자판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3700여 년에 걸친 역사와 예술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고고학적 소장품의 최고의 걸작은 '팔각형의 안뜰'에 있는 대단한 라오콘 군상이다.

미켈란젤로는 천년이란 세월의 망각 후에 막 발견된 이 조각상을 보고 매우 경탄했으며 이에 매우 큰

영향을 받았다. 미켈란젤로는 뱀으로부터 도망가려 애쓰느라 긴장된 근육의 단단함과 뱀에게 물린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내적 고통도 묘사한 라오콘의 얼굴 표정을 보고 매우 감동 받음과 동시에 이에 영감을 얻는다.

팔각형 정원 바로 다음에 또 하나 꼭 봐야 할 것은 바로 기원전 1세기 그리스 원 작품인 벨베데레의 반신상이다. 그 외에 미술관, 라파엘로의 방, 시스廷 소성당, 천정 벽화, 예언자 에제키엘, 최후의 심판이 볼 만하다.

#### 카타콤베(Catacombe, 지하 무덤)

아피아 가도는 고대 로마의 역사를 증거해 줄 뿐 아니라 초기 그리스도교의 수난사를 대변해 준다. 특히 카타콤베만큼 그리스도교의 순교의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 주는 것은 없을 것이다.

카타콤베는 9세기 초부터 초기 기독교신자들의 공동묘지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카타콤베 중에도 성 카리스토, 성 세바스티아노, 도미틸라 카타콤베가 있다. 우리 일행은 성녀 체칠리아의 무덤 앞에서 반야심경 봉독으로 불교적인 왕생극락을 염원하였다.

#### 진실의 입

산타 마리아 인 코스메딘 성당 입구 왼쪽에는 진실의 입이라고 하는 풀루비우스(강의 신)의 얼굴이

새겨진 동근 대리석 판이 있다. 진실의 입에 손을 넣고 거짓말을 하면 풀루비우스가 손을 삼켜버린다는 전설이 있었는데 중세 일부 악덕 영주들은 반감이 있는 사람에게 진실의 입에 손을 넣게 하고는 뒤에서 몰래 손을 자르게 했다고도 한다.

#### 프랑스편

##### 파리(7월 30일-31일)

조식 후 무거운 여행가방들을 이끌고 니스 역에서 기차(TGV)를 타고 파리로 향했다. 파리에서 2박3일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갑자기 하루 전날 출발한다는 여행사의 일방적인 통보에 우리는 일정을 조정 해야 했고 큰 곳 몇 군데만 둘러보기로 했다. 첫날은 루브르 박물관과 시내에 있는 개선문과 샹제리제 거리를 본 뒤, 늦은 시간에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파리의 밤을 보고, 그 다음 날 베르사이유 궁전을 보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었다.

#### 루브르 박물관

이 건축물은 프랑스 왕궁과 예술의 전당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루브르는 8세기 이상의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루브르의 기원은 12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필립 오귀스트 왕이 새로운 수도인 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센느 강변의 오른편에 왕정 요새를 포함한 성벽으로 파리를 둘러싸기로 결정한다.

이 성의 주루는 왕정 권력의 상징이 되었으나, 국고와 감옥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던 루브르의 전략적인 특징은 곧 퇴색되고 만다. 중세 시대에 루브르의 유물들은 관람객들에게 개방되어, 루브르 박물관의 현대적 표상인 유리 파라미드 아래의 박물관 입구 흘에서부터 관람이 가능하다.

오늘날 루브르 박물관은 역사적인 작품을 한데 모아 놓았을 뿐만 아니라, 현대 작품들을 위해서도 많은 공간을 할애하고 있다. 또한 센느 강변을 따라 늘어서 있는 거대한 루브르 건물에서만 전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루브르 공원에서는 조각 컬렉션을 보충하여 전시하고 있으며, 생 제르맹 데 프레 구역



끝으로 국경을 넘을 때마다, 또 안내자가 없을 때마다 간간히 우리에게 지식과 상식의 에너지를 만들어 주었던 미국 조지아 대학 이향순 박사님, 통역과 재치 있는 사회로 우리의 피곤을 풀어 주었던 여성개발원의 진우기 보살님, 시골에 묻혀 사는 내게 이런 넓은 곳까지 가슴을 열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준 해원 스님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11박 12일의 긴 여정을 詩 한 편으로 함축하면서 펜을 놓고자 한다.

### 소통의 길

-유럽 연수기-

떠남은

단순히

자리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나를 만나는 길

그 길 위에

놓을 수 있는 것은 놓아 버리고

버릴 수 있는 것은 버리고

건질 수 있는 것은 건져

화장세계로 장엄환

신상과 예술가의 만남.

그 영혼의 에너지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서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모나코, 프랑스가 하나 되어

보내고 만나는

시간을

수없이 하면서

삶이

자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소통의 길이었다.

그 길 위에

나는

진정 나를 바라보며

나를 만나고 있다. ☺

에 위치한 으젠느 드라크로와가 직접 설계, 1857년에 건립된 이 아뜰리에는 기적적으로 보전되어 1971년 국립 미술관이 되었고, 2004년부터 루브르 박물관에 예속되었다.

### ¶ 파리의 상징, 에펠탑

프랑스 혁명 100주년인 1889년에 세운 높이 320.75미터의 탑으로 구스타프 에펠이 민국박람회를 기념하여 세운 파리의 상징이다. 탑 아래 위치한 샹드 마르스 공원 왼쪽에는 나폴레옹의 유해가 있는 앵바리드, 그 근처에는 로댕 미술관이 자리 잡고 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정상의 전망대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건너편 사이오 박물관에서 보는 에펠탑의 아경은 정말 장관이다.

파리에서의 베르사이유 궁전을 끝으로 점심 공양을 한 후 우리는 파리 공항으로 향했고 파리 공항에서 출발하여 한국 시간으로 8월 1일 오후 2시 45분에 인천 공항에 도착하였다.

독일 일정을 제외한 11박 12일의 긴 순례를 무사히 마치고 각자의 수행처로 돌아갔으며 모두들 순례 길에서 생긴 작고 큰 이미지들을 가슴에 담아 좋은 에너지로 만들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한다.



## 네가 찾는 道는 눈 앞에 있다

편집부

어떤 스님이 대철 스님에게 물었다.

“道는 어디에 있습니까?”

“눈 앞에 있지.”

“저는 어째서 보지 못합니까?”

“그대는 ‘나’라는 생각이 있기에 보지 못한다.”

“저는 ‘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보지 못합니다만

그렇다면 스님께서는 보십니까?”

“‘네’가 있고 ‘내’가 있으면 더욱 보지 못한다.”

“그럼 ‘나’도 없고 ‘남’도 없으면 볼 수 있겠습니까?”

이에 선사가 말했다.

“‘네’도 없고 ‘나’도 없으면 누가 보겠는가?”

『禪門禪答』 중에서

## 생명과 평화는 어디로 갔을까

공선옥 / 소설가



눈이 오지 않는 겨울이다. 겨울에 눈이 오지 않으니 풍경들도 ‘퍽퍽’ 하고 그 풍경을 바라보는 마음은 ‘퍽퍽’ 하다. 전라도 고창의 작은 암자에 머물다 내가 사는 춘천으로 오려고 일단 서울 올라가는 버스를 탔다. 눈이 오지 않아서일까, 내 앞자리에 앉은 촌부들의 다소 톤이 높은 대화의 내용 때문일까. 차창으로 내다 뵈는 우리나라 농촌의 겨울풍경이 그렇게 황량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런 황량한 농촌 풍경이 끝나면 이윽고 등장하는 것이 온갖 원색의 간판과 고충건물로 뒤덮인 도시. 그 도시에 밤이 오면 또 온갖 불빛들이 번쩍이리라. 그 도시들이 그렇게 온밤내 번쩍이고 있을 때 적막한 – 아니, 이젠 적막하지도 않다. 적막할 수가 없다. 농촌마을을 포위하고 사방으로 난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소리 때문에 – 농촌엔 가로등만이 횡탱그렁하다. 그런 밤에 어디선가 집단으로 사육하는 개소리가 마치 늑대의 울음마냥 – 개들이 집단으로 회답하여 울면 꼭 늑대들의 울음소리 같다 – 밤하늘을 울린다. 우리나라의 한없이 외로운 농촌과 한없이 서글픈 도시들을 생각하매 마음으로는 눈물이 절로 흐른다. 더군다나 한반도 남쪽은 도시들만 자꾸 늘어나고 돈만이 최고

고, 돈 아니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활개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 그 반도의 북쪽은 헐벗은 산, 수해, 짚주림의 소식들이 거의 해마다 들려오는데 – 거기다가 핵실험까지. 세계의 지형도에서 같은 민족이 꾸린 나라들이 – 그렇다, 나라가 아니라 나라들이다! – 이렇듯 서로가 다 슬픈 모습이다.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본 영화 한 편이 생각난다. 제목은 〈걷는 사람〉. 일본영화다. 일본의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 몇 대째 양조장을 하면서 사는 노인이 부인을 잊고 나서의 일상을 그린 영화였다. 그 영화가 달리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단박에 차를 타고 몇 시간만 달려봐도 드러나는 우리나라 산천과 도시들의 ‘부박’ 한 삶의 양태들이 그곳 – 지명은 잊었다, 일본의 눈 많이 내리는 곳에서 몇 대째 같은 일을 해오며 살고 있는 사람의 삶과 비교가 되었기 때문이다.

정착민인 사람이 한곳에서 오래 – 그것도 대를 이어 같은 일에 종사하면서 – 살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축복 받은 삶이다. 제 나고 자란 곳을 떠나지 않고도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그러나 현실의 조건은 ‘한곳에 뿌리 내리고 자족하며 사는 삶’을 허락하지 않는다.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못 먹고 못 살겠으니 떠나고 ‘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떠난다. 유목민의 삶이야 위낙에 떠남이 삶의 한 양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지만 정착민의 경우는 한 번의 떠남은 이후 삶의 불안정을 뜻하기가 십상이다. 버스 안에서 앞자리에 앉은 부인들이 나누는 대화 – 한 부인이 농사에 실패한 경험을 얘기하니 다른 부인이 도시에서 실패하고 농사 짓겠다고 고향에 내려온 아들 얘기를 했다. 고창서 서울 오는 세 시간 동안! – 듣다가 보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거의 습관적으로 커놓은 텔레비전을 보다가 – 눈앞에서 뭐가 번쩍거리고 있으면 눈이 그쪽으로 자동으로 돌아가기 마련이라 – 황량한 창 밖 풍경을 바라보다가, 나도 모르게 입속으로 그 말이 되뇌어졌다.

‘생명과 평화 내 안에 있으니 생명과 평화 내 곁에 있으리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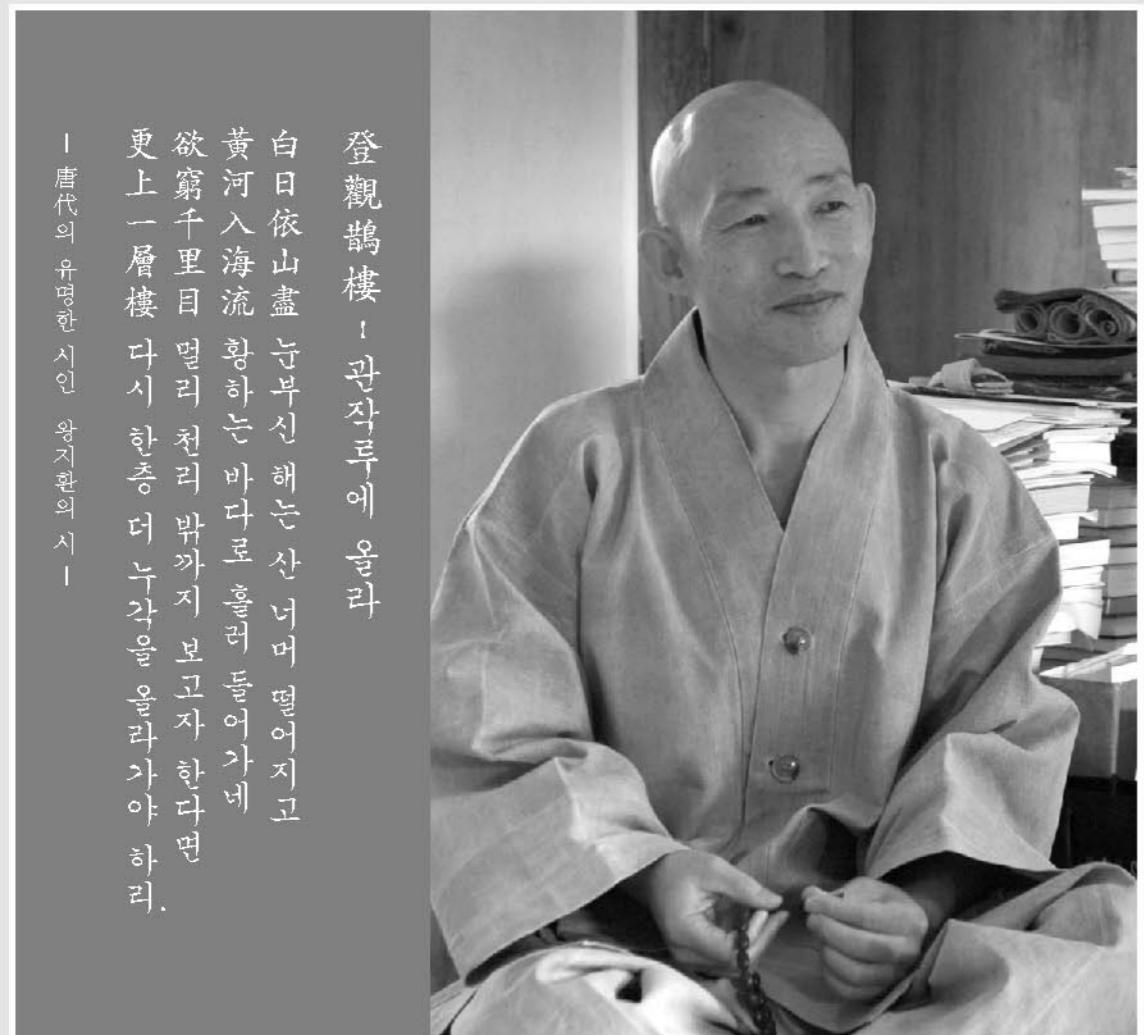
생명평화 탁발순례단들이 외웠던 단순한 ‘진언(?)’이다. 고창 암자의 스님이 청아한 목소리로 불러 주었을 때 나는 무슨 기독교의 찬송가인 줄 알았다. 그래서 깔깔거렸는데 가만히 듣고 있어 보니 듣기에 참 좋았다. 이 세상이 생명과 평화이기를 원한다면 내가 생명과 평화가 되자. 생명평화 탁발순례단장(?), 실상사 화림원 도법스님이 평소 주장하시는 말씀이다. 그 말씀이 내 가슴 한복판으로 들어와 북소리처럼 울린다. 세상의 평화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평화가 되자. 내가 지금 세상이 어지럽다고, 황량하다고 슬퍼한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바로 어지럽고 황량해서이지 않을까. 다시 한 번 나 자신에게 물어본다. 네 안에 평화는 어디에 있는가? 네 평화는 어디 평한테 모이로 갖다줘 버리고 세상에 평화가 없다고 궁시렁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평한테 모이로나 갖다줬다면 그나마 다행한 일이기도 할 터이겠지만 말이다. ☺

약력 | 1991년 창작과 비평에 ‘씨앗불’ 발표로 등단. 저서로 『명랑한 밤길』, 『상수리 나무집 사람들』, 『사는 게 거짓말 같을 때』, 『유랑 가족』 외 다수. 2005년 제2회 올해의 예술상 문학부문 올해의 예술상, 2004년 제36회 오늘의 삶은 예술가상 등 수상

## 더 높은 곳을 향해 쉼 없이 정진하라

- 직지사 성보박물관 관장 홍선스님을 뵙고 -

선주 / 사교과



직지사 성보박물관 관장으로 계신 홍선 스님을 뵙기로 한 날 바람을 꾸리며 떠오르는 망상, 선재동자가 선지식을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났을 때, 동자의 마음속에도 지금 우리와 같은 두려움과 설렘이 공존했을까. 탐방을 간곡하게 거절하심에도 불구하고 폐를 쓰듯이 겨우 받아낸 승낙임을 알기에 걱정이 섞이 기시질 않는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홍선 스님을 가까이서 뵙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설렘과 기대감이 더 커졌다.

직지사 성보박물관은 ‘천도의식과 명부전’을 주제로 한 기획전을 열고 있었다. 그다지 크지 않은 아담한 전시관의 구석구석에서 정성스러움과 꿈꿔 힘이 묻어났다. 박물관을 둘러보는 사이 스님이 기다린다는 얘기를 듣고 박물관을 나와 스님이 거쳐하시는 곳으로 향했다.

스님이 계신 처소는 직지사 맨 뒤쪽에 자리했으나 시야를 가릴 것 없는 전망 좋은 곳이었다. 그런데 처마 밑 편액이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 의아했다.

방에 들어서자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창 아래에 자리한 작은 받침대와 그 위에 놓인 하얀 찻잔. 한 쪽 벽면을 기득 채운 책들과 책상 주위에 쌓아올려 진 가지가지 책과 자료들이 묘하게 어울리면서, ‘아! 홍선 스님 방의 느낌은 이런 거구나’를 확실히 알게 해주었다.

“여러분이 운문지를 만들 때 목표가 뭐예요? 비교의 대상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맞추려고 하나요?”

인사를 드리고 자리에 앉자마자 준비해온 운문지를 받아 드신 스님께서는 생각지도 않게 출판물에 관한 이야기로 먼저 말씀을 시작하셨다. 의외의 질문에 뭐라고 답해야 할지 순간 난감하고 당황스러웠다. 운문지의 목표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 수행의 목표를 묻는 듯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수행자가 만든 출판물은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운문지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은 학인이 만든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절집에서 나오는 출판물은 세상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에게도 먹히는 그런 글들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너무 욕심이 과한가? (웃음) 아직은 어려워요. 그래도 그런 절 목표로 두고, 계속 내용을 심화시켜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공부 같은 것도.

따가운 일침이다. 그러나 따스한 바람이 담긴 말씀이었다. 새삼스럽게 내가 얼마나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먹물옷을 입고 있었나를 되돌아보게 되는 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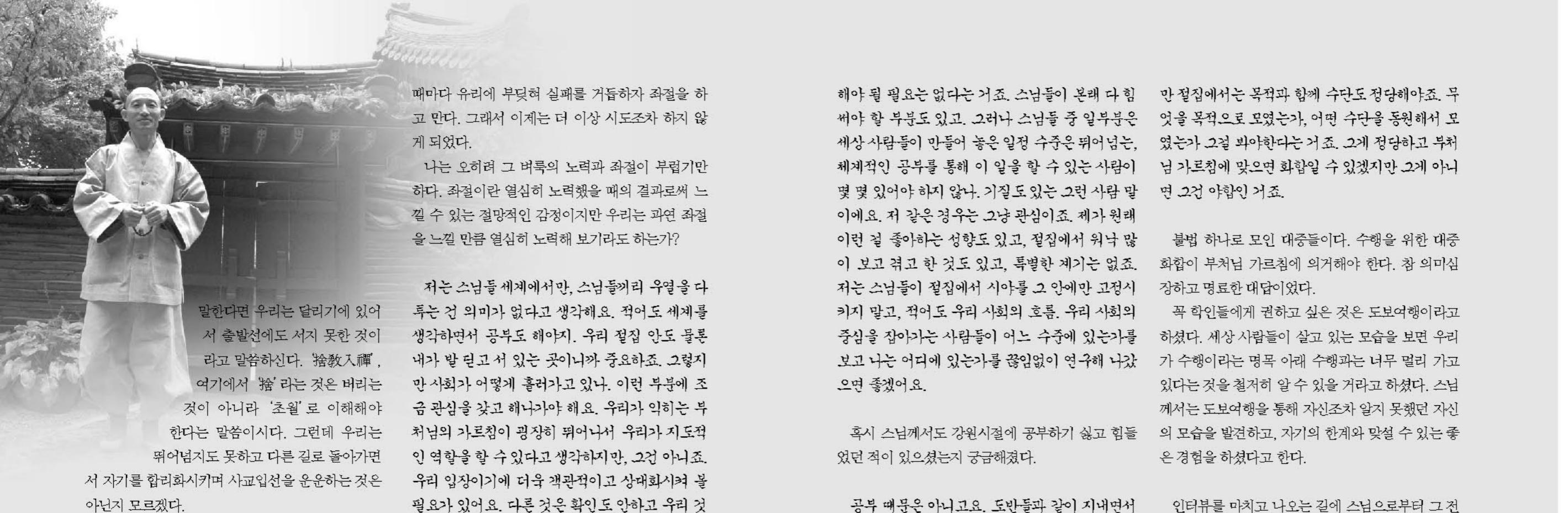
“운문사 학인들 공부는 열심히 해요?”

또 난감한 질문이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니 창피한 노릇이다. 한문 자체의 어려움에 대해서 토로하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경전을 보는데 말에 막혀 내용의 이해까지 가지 못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머리를 깎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언어의 관문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하신다. 문제는 ‘한문’이다.

스님께서 지적해 주신 한문 공부법의 문제는, 한문 문화권이기 때문에 한문화 친숙하다는 생각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모든 언어는 왕도가 없이 많이 읽고 외우는 수밖에 없다고 하신다.

한문이라는 것 자체가 적어도 현대 이전까지는 동아시아의 보편 언어였죠. 중국말을 배운다는 게 아니고, 고전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언어라는 전 문화의 엣센스이기도 하니까. 그것으로 도움을 받는다든지 그걸 추구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동아시아의 보편문화, 사상을 이해하자면 그걸 거쳐야 한다는 거죠.

한문이라는 언어에 막혀서 불교공부가 어렵다고



때마다 유리에 부딪혀 실패를 거듭하자 좌절을 하고 만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었다.

나는 오히려 그 벼룩의 노력과 좌절이 부럽기만 하다. 좌절이란 열심히 노력했을 때의 결과로써 느낄 수 있는 절망적인 감정이지만 우리는 과연 좌절을 느낄 만큼 열심히 노력해 보기라도 하는가?

말한다면 우리는 달리기에 있어서 출발선에도 서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捨教入禪', 여기에서 '捨'라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초월'로 이해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뛰어넘지도 못하고 다른 길로 돌아가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며 사교입선을 운운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임창순 씨가 한 '지곡서당' 아세요? 태동고전. 거기는 대학 졸업한 사람들 시험 쳐서 받아가지고 먹여 주고 재워 주고 용돈 줘가면서 공부시켰어요. 그런 사람들이 현대 학문의 무기를 가지고 있죠. 게다가 한문의 무기까지 가지고 있죠. 우리는 양손의 무기는 고사하고, 하나도 안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말에 막혀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뛰어난 사람들을 나는 늘 보고 살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우리 스님들이 팔만대 장경이니 뭐니 가지고는 있어요. 그걸 활용할 능력은 전혀 없거든요. 그걸 학자들이 해주난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닌가요?

임창순 선생의 지곡서당에 대해 말씀해 주셨을 때 스님의 후배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유리관 속에 갇힌 벼룩 한 마리. 벼룩은 원래 자기 크기의 300배나 높이 뛸 수 있었지만, 뛰어오를

저는 스님들 세계에서만, 스님들끼리 우열을 다투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세계를 생각하면서 공부도 해야지. 우리 절집 안도 물론 내가 발 닦고 서 있는 곳이니까 중요하죠. 그렇지 만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이런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갖고 해나가야 해요. 우리가 익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뛰어나서 우리가 지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죠. 우리 입장이기에 더욱 객관적이고 상대화시켜 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것은 확인도 안하고 우리 것 이 최고다 하는 경향이 있어요. 스님들의 맹점이에요.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는 생각. 저는 '속인'이라는 말, '속가'라는 말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평상시의 그 사람이 쓰는 말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드러나거든요. 일종의 우월감. 나를 놓고 보면, 그런 주장할 근거가 없는데 그런 말을 내가 쉽게 쓸 수 있겠습니까.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는 열심히 귀 기울이고 있던 우리를 보시더니 멋쩍어 하시며, "이거 봐요. 여러분들 저한테 와도 이득 될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탁을 거절하셨다는 뜻이다. 스님께서는 "불교사와 문화재 관련한 것이라면 몰라도 학인 스님들한테 특별히 해 줄 말이 없어요."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불교문화 지킴이'로 유명하신 스님께서 이 분야를 공부하시게 된 동기는 어떠했는지 여쭈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님들이 다 이걸

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스님들이 본래 다 힘써야 할 부분도 있고. 그러나 스님들 중 일부분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일정 수준은 뛰어넘는, 체계적인 공부를 통해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몇 있어야 하지 않나. 기질도 있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관심이죠. 제가 원래 이런 걸 좋아하는 성향도 있고, 절집에서 워낙 많이 보고 겪고 한 것도 있고, 특별한 계기는 없죠. 저는 스님들이 절집에서 시야를 그 안에만 고정시키지 말고, 적어도 우리 사회의 흐름. 우리 사회의 중심을 잡아가는 사람들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보고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끊임없이 연구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혹시 스님께서도 강원시절에 공부하기 쉽고 힘들었던 적이 있으셨는지 궁금해졌다.

공부 때문은 아니고요. 도반들과 같이 지내면서 어려운 일 많았죠. 외톨이처럼 지냈어요. 또 성격이 못되서 가슴을 후비는 얘기를 많이 했죠. 나만 옳고 상대방은 그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몰아쳤죠. 그거는 정당성에서는 저쪽에서 할 말 없죠. 하지만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활이 되는 말은 안했겠죠. 그래서 해인사에서 나오는 <수다리>에 '너무 늦은 반성'이라는 읊을 썼죠. (웃음) 지금도 그래요. 주류가 못돼요.

스스로를 비주류라고 말씀하시는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중화합은 어떤 것일까.

화합의 조건이 뭔가 그것부터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진정한 의미의 화합이라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에 따를 때에 화합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 사람이 간다고 화합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다른 말로 야합이죠.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지 않으면서 끌어 끓치는 게 화합은 아니죠. 사회에서는 목적은 정당해도 수단이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

만 절집에서는 목적과 함께 수단도 정당해야죠. 무엇을 목적으로 모였는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모였는가 그걸 봐야한다는 거죠. 그게 정당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맞으면 화합일 수 있었지만 그게 아니면 그건 야합인 거죠.

불법 하나로 모인 대중들이다. 수행을 위한 대중화합이 부처님 가르침에 의거해야 한다. 참 의미심장하고 명료한 대답이었다.

꼭 학인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도보여행이라고 하셨다.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수행이라는 명목 아래 수행과는 너무 멀리 가고 있다는 것을 철저히 알 수 있을 거라고 하셨다. 스님께서는 도보여행을 통해 자신조차 알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기의 한계와 맞설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하셨다고 한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스님으로부터 그 전각에 편액이 걸려 있지 않은 이유를 들을 수 있었다. '벽안당'이라는 당호가 있었지만 그것은 '눈 푸른 남자가 사는 집'이라는 뜻으로 관용 노스님께서 계셨던 쳐소로 자신에게는 걸맞지 않아 편액을 내린 것이라고 한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직시하되, 자신에게는 칼날 같이 정확하고 철저하며 타인에게는 따뜻하고 겸손하신, 항상 더 높은 곳을 향해 험 없이 정진하는 수행자. 그것이 우리가 본 흥선 스님이었다. 또한 우리들의 모습도 그러해야 하리라. ●



## 저절로 사랑하기까지

여진 / 사미니파



희야! 엄마 스님 돼도 되나?  
응?... 응. 해도 돼.

여느 아이들과는 달리 할아버지가 머리를 빠빠 깎은 스님이어서 집이 절이었던 텁에 단지 목탁 치고 염불하는 엄마의 모습을 그려보았을 뿐, 내 곁을 떠나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걸 어린 나는 알지 못했다.

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출가를 허락해 버린 딸에게 서운하기라도 한 것처럼 그 많은 제자를 두고도 모자라 엄마마저 테려가 버린 욕심 많은 부처님에게 가버렸다. 조금씩 어른이 되어 갈수록 그 빈자리를 부처님이 채워 주실 줄 알았는데 채워지기는커녕 하고 싶은 게 많은 어린 나에게 '삶의 영원하지 않음' 만을 잔뜩 실어줄 뿐이었다.

엄마가 마음에서 채 지워지기도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버지 역시 할아버지에게 받았던 혼자만의 상처 때문인지 그렇게 싫다며 등 돌렸던 절파의 인연에 지쳐버린 듯 머리를 깎고 목탁을 치기 시작했다. 늦깎이 아버지의 염불소리는 듣고 있는 딸

의 가슴을 애는 듯 슬프게 했고, 그런 나에게 부처님은 세상에서 가장 미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

'모든 것은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라고 하신 부처님 말씀대로라면 도대체 나는 왜 이 많은 일들을 선택하고 경험하려 했을까?

수많은 사람들과 각기 다양한 삶 속에서 함께이기에 감사하고, 이 몸이 있기에 공부할 수 있는 감사함을 알기엔 내 그릇은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상처 투성이였다. 그렇게 제멋대로 금이 간 곳을 감추기 위해 가면을 쓰면 쓸수록 마음속에 영원히 빛날 것 만 같던 밝음은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나에게로부터 멀어져 갔다.

섭섭함과 오기로 부처님께 머리를 숙일 때면 "부처님께서 아무리 세상에 영원한 게 없다고 하셔도 저는! 저는! 꼭! 영원히 살 겁니다." 라며 읊먹였고, 그런 나를 바르게 끌어안고 사랑하기까지 많은 시간 무참히 짓눌려 참다못해 빠져나온 내 안의 거센 칼

날들을 고스란히 견뎌야만 했다. 세상이라는 닭장 속에 갇혀 있는 줄 모르고 뾰족 솟은 닭 벼슬이 부려 위 밖으로만 헤맬수록 찾아오던 텅 빈 공허함은 영원히 살고자 했던 간절한 나의 바람처럼 마침내 출가의 길에 발을 딛고 설 수 있게 했다. 그제서야 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 처음 시작된 출가수행!

우리 밖의 무한한 세상은 함부로 볼 수 없는 마법의 창구를 열어보다 들킨 것마냥 가슴을 뛰게 만들었다. 사실 마법의 주문은 그리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비밀이 조금씩 벗겨질수록 이질적으로 다가오는 내 안의 또 다른 나의 모습과 경계를 두려움 없이 감당해 내기 위해선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일어서야 했다. 습관적으로 좋은 것만 취해 왔던 알박하고 뻣뻣한 나의 의식들은 많은 고정관념으로 순수함을 내동댕이쳐 버렸고, 가면 속의 진실함을 애써 외면하기 일쑤였다.

누군가의 진실한 사랑을 구하기 전에 난 빙을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은 순전히 겁데기였던 것이다. 거짓 속에서 진실을 찾아 억지 부려 왔던 나를 보면서 무엇을 해내야겠다는 욕심보다는 이 삶은 결실을 위한 충분한 과정임을 받아들였다. 언젠가는 이렇게 알게 된 진실 또한 결국 나를 찾는 방편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되리라!

모두가 하나임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바닥까지 기꺼이 함께 할 수 있는 따뜻한 능력의 샘이 마르지 않기를 오늘도 되뇌어 본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말씀을 배우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늘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나의 존재를 알아가게 되었다. 그 순간을 피해서 더 많은 행복을 바랬던 꿈 많던 시간들은 이 순간을 딛고 일어서지 않고는 더 푸른 하늘을 조금도 볼 수 없다는 현실에 오히려 많은 힘이 되었다.

슬펐던 현실은 부처님의 바른 法을 통해 절대적

고통도 절대적 헛됨도 아님을 ….

그렇기에 더욱 소중하고 감사한 이 삶을 많은 중생들과 함께 회향할 수 있는 이 자리가 결코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두 손 모아 본다.

아무리 주어도 아깝지 않는 자식을 향한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처럼, 모든 것들을 대함에 함께 기뻐하고 온전히 함께 아파하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을 바른 노력의 힘으로 삼으며, 苦海에 다시 몸을 나툰 관세음보살님의 大願처럼, 함께이지만 홀로 서야만 하는 이 길에 큰 사랑만큼의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바른 믿음으로 그저 순간순간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한 인간으로서 부처님을 온전히 볼 수 있기를 ….

### 生의 本分을 알게 하신 부처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만나 먼저 善知識이 되어 주셨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나와 인연이 있는 많은 有情·無情들! 빛이라는 존재로 이 세상을 보게끔 날 낳아주신 모든 은혜에 보답하고자 기히 파괴되지 않는 佛法 앞에 당당히 무릎 끓고, 움지 못한 잣대로 지어왔던 울타리를 허물어 오늘도 저절로 사랑하는 그 속에서 모든 것과 친구이기를 가만히 눈감아 본다.

내 아름다운 마지막이 지극히 평범하기를 소망하며 말이다. ●

만중생을 향한 일체 포용의 생각을 자기 것으로 지켜 내라.

천 우주를, 그 높은 곳, 그 깊은 곳, 그 넓은 곳, 끝까지 모두를 감싸는 사랑의 마음을 키우라.  
미움도 적의도 넘어선 잔잔한 그 사랑을.

『필수자비경』中에서

## 겨울, 그리고 또 다른 시작

용선 / 사집과



운문사의 사집반, 그 다른 이름은 '원두반'이다. 넓디넓은 밭을 종횡무진 달리며 여러 가지 작물을 키워서, 대중에게 떡을거리를 공급하는 소임을 맡기 때문이다. 그저 탁 트인 밭으로 나갈 수 있다는 생각 만 했지 첨단시대를 함께 달리던 우리들 중 누구도 몰랐었다. 흙과 함께 하는 일이야말로 천하의 근본 임을.

기다리며 이 도량을 지켰다. 대방에서는 사집에서 배우는 첫 과목인『선가귀감』을 독송하고 논강을 했다. 밭에서는 땅을 뒤집어서 고르고 거름 묻는 일이 이어졌다. 그 시간이 사집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음을 알지 못했던 그 때는 논강도, 냄새 풍기는 거름을 묻는 작업도 고역스럽게 느껴졌다.

### 새로 맞았던 봄

비좁은, 그러나 정들었던 지대방을 치문반 스님들 에게 내어주고 별천지인 줄로만 알았던 새로운 지대

방으로 이사를 했다. 하지만 똑같은 크기의 지대방의 벽면에는 더 많은 규칙과 전달사항 등의 종이로 뒤덮여 있었으니, 이를 통해 알았다. 사집 역시 청풍료의 절반이라는 사실. 실망도 잠깐, 우리는 좀 더 여유롭게 한 철을 시작하는 개학공사를 치뤘고, 조금 더 익숙하게 발우를 꿔졌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원두반의 일이 시작되었다. 겨우내 고른 땅에 흙먼지를 뒤집어쓰면서 고랑을 파고 젊은 비닐을 덮어서 씨감자를 심었다. 열무, 비트, 가지, 오이, 호박 등의 갖가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다. 짧은 시간에 무서운 속도로 이루어진 파종 작업이라 반장스님과 도감스님 외에는 어느 고랑에 어떤 작물이 심어졌는지 몰랐다. 그래서 기특한 새싹을 보며 서로 말했다. “스님, 이 고랑이 당근이예요, 저 고랑이 당근이예요?”

### 여름

우리가 도량을 비웠던 봄방학 동안 치문반 스님들이 심어 놓은 고추는 무럭무럭 자라서 탐스러운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우리는 풀을 뽑고 결가지를 조금 따 준 것밖에 없었는데도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크는 고추가 고맙기만 했다.

비가 잦고 무더위가 이어졌던 그 여름에 시간이 없고 손이 모자란 것을 불평하며 빼약볕 아래서 풀을 뽑는 동안 걸웃까지 다 젖을 만큼 땀을 흘려야 했다. 그러다 보니 서서히 지쳐가면서 짜증이 늘기 시작했다.

하루는 도감스님이 저녁공양 후 모두 이목소로 모이라고 했다. 또 무슨 운력인가 싶어 나갔던 우리는 뜻밖에도 이목소 물에 몸을 담글 수가 있었다. 적삼 차림으로 시작한 물놀이는 날이 어두워지고 입술이 새파래져도 끝날 줄을 몰랐다. 그 모든 짜증과 고단함이 이목소의 차가운 물에 녹아서 셧겨나가는 듯했다. 여름 밤하늘에 하나씩 떠오르던 별빛만큼 가슴 속까지 시원했던 물놀이가 아쉽게 떠오를 즈음, 우리는 가을철을 맞았다.

### 가을

사집의 기울에 고추와의 한판 전쟁을 벌일 거라던 상반 스님들의 말은 젖등으로 들을 게 아니었다. 고추를 따고 난 바로 그 자리에서 빨간 고추가 다시 자라나서 풍성한 수확이 되었다. 고추와 고춧잎을 때는 기나긴 대중울력을 불구하고 생강이며, 토란, 호박 등 낙농하고 풍요로운 수확물 덕분에 웃음도 해온 계절이었다.

우리의 첫 수확물이었던 못생긴 초록 피망을 조왕님 앞에 올리던 날이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감격이 울컥하고 올라왔다. 새빨간 비트와 통통한 양배추, 가시 뾰족한 오이를 거둬들여 대중에게 공양을 리면서 우린 말했다. “이제서야 ‘이 음식에 깃든 수고로움과 그 유래를 생각하노니, 부족한 내 덕행으로는 공양받기가 부끄럽네’(計功多少量彼來處, 尋己德行全缺應供) 하는 오관계의 진정한 의미를 알 것 같다”고.

### 그리고 다시 맞은 겨울

뭣 모르고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려 놓으면 저절로 자라는 줄로만 알았던 지난 시간이었다. 하지만 가물면 고랑마다 물뿌리개를 들고 뛰어다녔고, 태양초 고추를 만들 땐 이른 새벽부터 하늘을 바라보며 햇빛 나기만을 바랬다.

그 가슴 졸였던 원두반의 마음은 이제 호거산의 품 속에서 새로이 익어간다. 원두반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시간을 보낸 반 스님들 얼굴 하나하나에 나타난 지난 시간 동안 흘린 땀의 결실이 앞으로의 수행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또 앞으로 남은 수많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안 우리는 가슴으로 자연과 하나되고, 부처님과 하나 되어가는 수행자이길 바라면 서 새로운 봄을 기다려 본다. ●

## 산중에서

운현 / 대교과

“스님, 우리 이번엔 어느 산을 갈까요?”

쉬는 날 즈음이면 으례 도반스님과 오고 가는 대화다.

보름에 한번 쉬는 날을, 이 일상에서 유일한 희망인 양, 설레임으로 손꼽아 기다리는 이유는 산에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에서 하나의 돌파구, 또 다른 나의 수행처, 山 ….

나에게 있어 산은 그저 산에 불과했었다. 어차피 내려올 것을 굳이 땀 흘리며 힘들게 올라가는 게 부질없어 보였고, 이해할 수 없었다.

손에 잡히지 않는 이상항을 꿈꾸며, 대중 속 부대낌에 지리멸렬(支離滅裂)함을 느낄 줄, 우연찮게 결정된 도반스님과의 산행. 산 초입에서 수제비로 요기를 하고 정오의 햇살을 한껏 받으며, 솔내음 나는 숲길을 걷다 알맞은 자리를 골라 팔 베고 별렁 누웠다.

눈 앞에 펼쳐진 드넓은 파란하늘, 굽이치는 능선을 바라보며, 태고적의 편안함과 가슴속이 시원해짐을 느끼며, 맹목적이다 싶을 정도인 나의 산행은 이렇게 시작됐다. 잠재되어 있던 방랑기가 태동한 것이다. 이후로 산은 나만의 공간, 내 정서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이른 아침 공양을 마치고 도시락과 따뜻한 물병 하나 챙겨 들고 산을 찾는다.

마음이 맞는 도반과 함께라면 마음을 나눔과 동시에 이해의 장이 될 수 있고, 생각할 여유와 자유를 원한다면 나름대로 혼자라도 좋다.

산을 오르기 시작하면 막 발심한 초심자와 같이 가보지 못한 세계에 대한 열망으로 두려움과 긴장감, 기

대감이 교차한다. 산행 처음 기점에서는 대부분 오르막이다. 나는 오르막이 좋다. 힘든 만큼 자연히 한 걸음 한 걸음 내 호흡에 집중하며, 이리저리 뒤섞여 있는 생각들을 키질하며, 마음상태를 오롯이 정화시키는 작업을 할 수 있다.

더불어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땀방울이 내 세포 하나하나에 깊숙이 침투되었던 미세한 번뇌, 망상마저도 말끔히 셧어주는 듯하다.

새삼스레 출가 전 산중의 절을 찾았을 때 등산화에 걸망하나 지고, 밀짚모자 쓰고 산을 오르는 스님의 모습을 생각해 낸다. 뭣 모르던 시절에도 개성 있는 스타일에 여유롭고 자유로우며, 한편은 외롭고도 당당해 보였다. 기억 속 한 쪐에 남아 있던 그 스님의 뒷모습에서 수행자인 지금의 나의 모습을 되돌아 본다. ‘과연 나는 자유로운가? 절대적 외로움 속에서도 당당한 모습인가?’ 하고 반문해 보기도 한다.

산은 서로 어깨동무하며 이웃해 있으면서도 그 하나하나의 봉우리는 나름대로 홀로 우뚝 솟아 있다. 수행자도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 대중에 섞이면서도 구도에 있어서는 언제라도 처절하게 홀로일 수 있는 … 그곳에서 나는 당당함과 홀로서기를 배운다.

막바지 힘을 다해 정상을 향한다.

정상에 오르면 탁 트인 장엄한 광경에 형언할 수 없는 벽찬 감정이 밀려온다. 군더더기 말은 필요 없다. 비명에 가까운 한마디 “좋~다”를 외치고 나면 내 분상에서의 시시비비는 온데간데없다.

일상이 아닌 새로운 공간에서의 감동은 중생심에 폭 절여져 있던 나를 일깨운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보면 별것 아닌 것이 가까이 있으면 큰 고통으로 다가오고, 가까이 있어 하잘 것 없어 보이던 것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큰 행복으로 다가옴을 내 진정 예전에 몰랐었던가!

산정에서의 환희로움을 느끼며 고생했던 다리를 쉬어주며, 차 한 잔으로 한껏 여유를 부려본다. 이제 내리막이기 때문이다. 고단함이 찾아든다.

귀소본능(歸巢本能)! 이제 운문사로 돌아갈 시간이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건 참 든든하고 행복한 일이다. 누군가 말했던가! 여행은 돌아가기 위해 하는 거라고 … 나의 아니 우리들의 궁극의 귀의처. 그곳을 향해 다시금 힘차게 발돋움해야 함을 다짐한다.

산중(山僧) 하나가 고개 들어 겨울 산을 바라본다. 운문사에서 마지막으로 보는 겨울 산. 보고 있어도 그립다.

산은 모든 것을 떨어버리고 거대한 알몸으로 균육질의 형상을 드러내고 있다. 제 할 일을 다함에 여유롭고 한가롭게, 의젓하고 담담하다. 안으로는 새로운 출발을 위한 씨앗을 품음에 넉넉하고 아름답다.

운문사에서의 짧지만은 않았던 4년이라는 기억을 가슴에 담고, 또 다른 시작에 앞서, 나는 다시금 산에게서 아름다운 희향을 배우려 한다. ●

## 생각으로부터의 자유

편집부

당신은 당신의 사고와 판단을 믿으십니까?

오랫동안 분석하고 추론하여 내린 결론이 즉흥적인 결정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실험참가자들에게 그림 몇장을 보여주고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집으로 가져가게 했습니다. 단 한 그룹에게는 선택한 그림이 왜 좋은지 따져보게 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그런 분석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그림을 고르도록 했습니다. 2주 후 실험 참가자들에게 연락해 가져간 그림이 마음에 드는지 물었을 때, 분석을 하지 않고 그림을 고른 파실험자들이 자신의 결정에 훨씬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뇌 과학자들이 인간의 의식세계를 탐구한 결과 밝혀진 것은, 사람들의 판단과 행동은 의식이 개입하기 전 무의식에서 이미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지성과 이성으로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은 단지 착각이며, 이미 무의식에서 결정된 대로 움직이는 것에 불과하다면 인간의 고유가치인 자유의지라는 것이 과연 있는 것인가, 인간 이성에 입각한 모든 학문적 성과는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근본적 의문에 비로소 학자들도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통해 완벽해질 수 있을까요?

이성을 통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 심사숙고하면 진리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인간의 이성이 이룬 몇몇 훌륭한 업적들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리 이성의 대부분은 삶에서 자신의 욕망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채우는 데 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최근 10여 년 전부터는 전 세계에 광적 으로 퍼지는 개인주의 영향으로 남보다 '튀개' 살려는 데 모든 사고력을 쏟아붓는 것이 이 시대의 善인 양 인식되고 있습니다.

출가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곳곳에 스며있는 개인주의, 자본주의 문화에 젖어 자라온 우리 젊은 수행자들은 이미 모든 것을 자신의 욕구 충족에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로 따지고 구분하는데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도록 길들여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진행되는 사회에 이미 적응한 우리의 뇌는 고요한 산중에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찾아 해매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미 물리적 의미에서 세속을 떠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깊은 산중이라도 몇 가지 도구만 있다면 간단히 온 세상과 접하며 우리의 五感과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가는 단순히 세속 생활의 포기와 수도생활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출가는 욕망과 야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면으로 깊이 가라앉아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바로 보지 않으면, 의식하지도 못한 채 인간의 생존을 위한 뿌리 깊은 본능 -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 데 우리의 모든 智力を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선사들께서는 참된 진리를 알려면 먼저 모든 알음알이를 버리고, 떨 kapsamında 조차 쓸 수 없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쪽은 나무등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이 아는 것, '똑똑한 척' 하며 따지고 분석하는 것을 매우 경계하십니다.

단지 많이 아는 것, 지적 능력이 발달된 것이 마음공부에 무슨 장애가 되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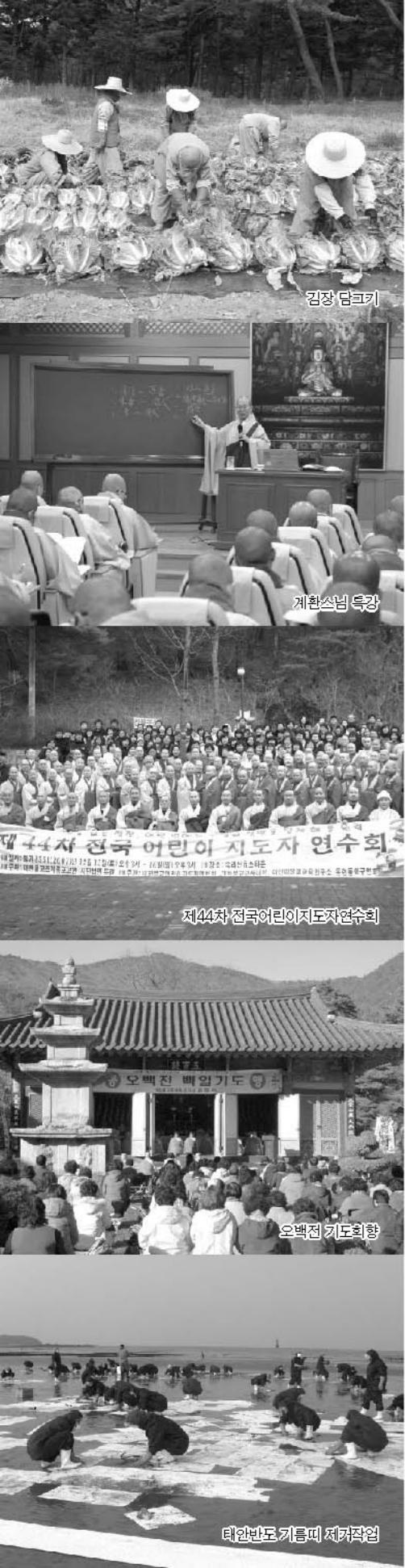
다만 알면 아는 만큼 더 알고 싶고, 더 경험하고 싶고, 그것을 남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 소박함에서 온갖 종류의 미묘하고 차원 높은 욕망과 야망이 번져나갑니다. 평범한 우리들은 지식과 분별에 걸려 그렇게 허우적대기 일쑤이기 때문에 선지식께서는 강하게 경계하신 것입니다.

인간 이성의 한계를 깨닫고 겸허히 수용할 때, 비로소 그 밑바닥에 항상 깔려 있는 뿌리 깊은 본능인 개인의 욕망을 바로 보게 되고, 깊고 고요한 의식으로 그 욕망을 초월해야 비로소 무의식의 부림을 받지 않는 진정한 인간의 자유의지가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더 이상 개인의 욕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해 우리의 이성을 사용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

文章驚世徒爲陋 富貴薰天亦漫勞  
何似山窓寂漠夜 焚香默坐聽松濤

문장이 세상을 놀라게 해도 다만 조악할 뿐이고  
부귀가 하늘까지 풍겨도 또한 헛수고이네  
어찌 山窓이 적막한 밤에 향 피우고 묵묵히 앉아  
소나무 파도 소리를 듣는 것만 같으랴.

- 북창(北窓)선생의 詩 -



## 운·문·소·식

- 11월 23일 겨울철 개학공사 및 동안거 결제 제사가 청풍료와 비로전에서 각각 있었습니다. 더욱 더 새로운 신심으로 간경정진에 들어갔습니다.
- 11월 27 ~ 29일 원두반 스님들이 한해 동안 정성껏 가꾼 채소로 김장 담그기 대중 운력이 있었습니다. 대중스님들 정말 근념하셨습니다!
- 11월 30일 학림사 오동선원의 조실스님이신 대원 큰스님의 동안거 결제법문이 대웅전에서 있었습니다.
- 12월 6일 요가 수업을 시작으로 서예, 꽃꽂이, 사군자, 일어, 영어, 컴퓨터, 맹자, 피아노 등 외전이 시작되었습니다.
- 12월 11 ~ 13일 사교·화엄반 스님들을 대상으로 시청각실에서 '중국불교사' 특강을 동국대 교수이신 계환 스님이 해주셨습니다.
- 12월 13일 확인 스님들의 겨울철 차제법문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12월 15일 ~ 16일 제44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가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멈춤 없는 경진! 어린이 벗에게 수행의 첫발을 딛게 해줄 원력'이라는 주제로 열려 교회부 스님 25명이 1박 2일 다녀왔습니다.
- 12월 16일 지난 9월 9일에 임재한 오백전 기도회향에 1,000여 명의 신도님이 운집하였고, 회향법문은 교무 운산 강사스님이 해주셨습니다.
- 12월 17일 12월 7일 태안 앞바다 원유선 'Hebei Spirit(허베이 스포리트)호'의 기름 유출 사고' 발생 현장인 신두리 해변가에 주지 스님 외 전 대중이 기름띠 제거 작업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 12월 21 ~ 24일 동지 행사로 3박 4일간 임시 휴강하였습니다.
- 12월 27일 가을철 포살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1월 5일 '한국 암자화의 이해'를 주제로 김호석 화백의 특강이 시청각실에서 있었습니다.
- 1월 12일 동국대학교 교수이신 성본 스님의 선학(禪學) 특강이 있었습니다.
- 1월 14일 '성도 재일'을 맞아 대중스님들의 철야 정진이 있었습니다.
- 1월 20일 4년간의 강원생활을 회향하는 대교반 스님들의 졸업송별회 및 사은회가 있을 예정이고, 그리고 다음날 승가대학 44회(50명) 졸업식이 대웅보전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 1월 26일 38일간 겨울방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1월 27일 신입생 입학시험이 오전 7시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 도와주신 분

- |           |               |           |
|-----------|---------------|-----------|
| • 회문스님    | • 봉화 삼신사 주지스님 | • 정영미 불자님 |
| • 김장환 불자님 | • 이기태 불자님     | • 권혁창 불자님 |
| • 김영자 불자님 | • 신영섭 불자님     | • 정수균 불자님 |
| • 장영상 불자님 |               |           |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雲門』誌 발간에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의 온라인 구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01-000335, 예금주 : 운문편집실)

\* 주소가 변경된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 054-370-7139 (FAX 054-372-8834)